발간 등록 번호
11-B553921-000022-01

2022 제주어 포럼 놀 행사기록

영화·드라마 제주어를 솜지다 삶키다

제주학연구센터 편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2022 제주어 포럼 눌

영화·드라마 제주어를 삼지다 삼키다

발간 등록 번호
11-B553921-000022-01

2022 제주어 포럼 놀 행사기록

영화·드라마 제주어를 솜지다 삶키다

제주학연구센터 편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책을 내며〉

제주어 혼 가지라도
졸바로 허기 위하여

"사름은 혼 가지만 졸바로 허민 된다. 똑 ᄒᆞ나. 그게 무시거가 뒈엇든 좌우지간 최고가 뒈민 뒈어."

AppleTV+ 드라마 〈파친코〉에서 재일제주인 1세로 그려진 정웅인이 한 말로, 제주학연구센터는 이 대사처럼 무엇이든 한 가지라도 똑부러지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며 올 한 해도 힘차게 달려 왔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2022년 세 번째 제주어 포럼을 열며 영화와 드라마 속의 제주어를 소환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은 제주어 포럼 '눌'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영화·드라마, 제주어를 숨지다(삼키다)' 행사 기록집을 냅니다.

행사 진행 순서에 따라 개회식, 제주어 노래 공연, 영화 〈빛나는 순간〉 상영, 좌담회, 제주어 대사 전시 내용, 행사 홍보 및 보도 자료 등

을 글로 옮겨서 사진과 함께 담았습니다.

개회식에서 '느영 나영'과 '봐사주'라는 곡을 부른 가수 루아 씨의 공연은 호응이 무척 컸습니다. MZ세대가 부르는 "걸앙 몰라 봐봐사 알주"는 70대 관객의 어깨를 들썩이게 했고, 또 제주 배우 고두심이 주연을 맡은 영화 〈빛나는 순간〉 상영회 때는 제주인들의 가슴 속에 꽁꽁 쌓아 놓았던 눈물을 훔쳐냈습니다.

좌담회에는 제주와 제주 문화를 기반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고희영·김선희·변종수 님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청 문화정책과 변영근 과장이 참여해 영화·드라마에서 제주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지금이, 바로 제주어에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 제주어 포럼 눌의 세 번째 '눌'도 잘 가린 듯 싶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내년에도 제주어 '눌'을 튼실히 눌며 제주어 흔가지라도 졸바로 전승하기 위하여 제주어 연구자, 활동가, 언론사 등과 함께, 또 언제나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는 제주도민들과 힘을 모으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지지 거듭 당부드렴수다. 막 고맙수다양.

2022년 12월 20일

제주학연구센터장 **김 순 자**

2022 제주어 포럼 눌

영화·드라마 제주어를 솝지다 삶키다

차례

1. 사업 개요 9

2. 제주어 포럼 '눌' 지상 중계 기록 13

2.1. 개회식 14

2.2. 제1부 영화 상영회 31

2.3. 제2부 좌담회 35

3. 기타 행사 관련 기록 101

3.1. 영화·드라마 속 제주어 대사 전시 102

3.2. 홍보 및 보도 자료 123

3.3. 행사 사진 142

2022 제주어 포럼 놀

영화·드라마
제주어를 살지다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2 제주어 포럼 '눌'

■ **사업 기간**: 2022. 8.~2022. 12. 31.

■ 사업 목적 및 필요성

- 제주어 연구자, 활동가들의 연구 내용과 활동 상황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0년부터 제주어 포럼을 정례화하고, 2021년 제주어 포럼 '눌'-페우곡, ᄂᆞ누곡, 통ᄒᆞ곡을 개최한 바 있음.
- 2022년에는 '영화·드라마 속에 나타나는 제주어'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여 제주어 관련 활동 및 연구의 폭을 넓히고, 제주어 관련 단체, 활동가, 연구자 간의 정보 공유와 교류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연구진

성명	소속 및 직급	역할
권미소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연구 책임자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공동 연구
김미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공동 연구
오은주	제주학연구센터 위촉연구위원	연구 보조
현혜림	제주학연구센터 위촉연구원	연구 보조
현혜경	제주학연구센터 연구보조원	연구 보조

■ 사업 내용

- 행사명: 2022 제주어 포럼 '눌'-영화·드라마, 제주어를 ᄉᆞᆷ지다삼키다
- 행사 일시: 2022. 10. 7.(금), 14:00~18:00
- 행사 장소: 제주문학관(제주시 연북로 339) 4층, 대강당
- 행사 내용: 개회식 및 제주어 노래 공연
  제1부 영화 〈빛나는 순간〉 상영회
  제2부 '영화·드라마, 제주어를 ᄉᆞᆷ지다' 좌담회
  〈부대 행사〉 영화·드라마 속 제주어 대사 전시

■ 행사 일정표

구분	시간	내용	참여
개회식 사회: 김미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14:00~14:10	인사말	김순자(제주학연구센터장)
		축전	김한규(제주시 을 국회의원)
	14:10~14:20	제주어 노래 공연	루아(가수)
제주어 포럼 '눌' **1부**	14:20~16:00	영화 상영회	〈빛나는 순간〉 상영
	16:00~16:10	휴식	
제주어 포럼 '눌' **2부** 좌장: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	16:10~17:20	'영화· 드라마, 제주어를 솝지다' 좌담회	양영식(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 변영근(제주특별자치도청 문화정책과장) 고희영(〈물숨〉 영화감독) 김선희(KBS 제주방송총국 작가) 변종수(문화놀이터 도채비 대표) 등

* 이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했습니다.
* 행사 영상은 유튜브(youtube)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https://www.youtube.com/watch?v=Ai4f5raP3AA)'에서 다시보기가 가능합니다.
* 행사 기록집은 행사 중계 영상 그대로를 한글로 전사하여 엮었습니다.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등의 말실수나 오류 등은 일부 수정하였음을 미리 밝힙니다.

2.

제주어 포럼 '놀' 지상 중계 기록

2.1. 개회식

사회: 김미진(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인사말: 김순자(제주학연구센터장)

축전: 김한규(제주시 을 국회의원)

제주어 노래 공연: 루아(가수)

개회식

김미진
(사회자,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김미진: 지금부터 〈제주어 포럼 '눌' - 영화·드라마, 제주어를 숨지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휴대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강당 안에서는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들의 블루스〉와 〈파친코〉 등 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제주어가 사용되어 그 어느 때보다 제주어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한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어 포럼의 주제도 '영화·드라마, 제주어를 숨지다'로 정해 보았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숨지다'는 제주어로 '삼키다'라는 뜻입니다. 영화와 드라마가 삼킨 제주어가 그 속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영화와 드라마 분야에서 제주어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는 자리로 오늘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제주학연구센터 김미진입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2월 8일, 제주어 유네스코 소멸위기 언어 분류 10년 제주어 포럼 및 기억 행사에서 제주어 연구자, 활동가들이 소통하는 자리를 정례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매해 제주어 보전과 육성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제주어 포럼 '눌'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서 몇 분의 내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 강영봉 이사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 이종실 이사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배영환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황문희 제주시교육청 장학사님께서 와 주셨습니다.
이영림 제주도교육청 장학사님께서도 와 주셨습니다.
변종수 문화놀이터 도채비 대표님 모셨습니다.
KBS 김선희 작가님도 함께하셨습니다.
서귀포시교육청 박재희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노래를 불러 주실 가수 루아 님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의 제목인 '눌'은 단으로 묶은 곡식 등을 차곡차곡 쌓은

가리를 뜻하는 제주어입니다. 들어오실 때 받은 제주어 공책 '눌'의 제일 앞장에 이 '눌'의 의미와 저희가 이 행사를 준비하는 마음을 적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하는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자 센터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

김순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마스크 벗으쿠다예. 막 반갑수다예. 자리는 하영 비어신디도 꽉 찬 걸로 생각해서 이제 가겠습니다.

오젠덜 허난 막 속아수다. '사름은 혼 가지만 졸바로 허민 뒌다. 똑ᄒᆞ나.' 이 말은 올 3월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은 AppleTV+ 드라마 〈파친코〉에서 한수 아방 정웅인이 한 말이렌 헴수다. 이 대사처럼 한 가지라도 똑 부러지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이 제주어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제주어보전회, 제주어연구소 관계자분도 많이 나와 있고, 제주어를 담당하는 교육청과 제주시, 서귀포교육청 다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는 여느 해보다 영화나 드라마 속의 제주어가 더욱 사랑받는 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학연구센터가 세 번째 제주어 포럼의 주제를 영화와 드라마 속의 제주어를 소환하여 그 사랑을 널리 공유하고 싶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센터는 지난 2020년에 제주어 포럼 '눌'을 창설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습니다. '영화·드라마, 제주어를 숨지다'라는 주제로 여는 이번 포럼에서 매체를 통한 제주어의 가치와 우수성을 조명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를 빛내 주기 위해 자리를 함께한 많은 분들, 아까 우리 김미진 선생님이 소개를 해 주셔서 제가 별도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서 같이하는 우리 루아님. 아까 노래를 들었더니 좀 새로운 감각으로 우리 제주어를 또 해석하고 있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우리 김선희 작가님, 변종수 배우님. 이분들은 오늘의 주인공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희영 감독님도 함께 하시기로 했지만 나중에 좌담회 때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주어를 하는 사람, 제주어를 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하고 그리고 널리 활용하는 모두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와 드라마가 숨진 제주어를 되새기면서 제주어를 졸바로 하겠다는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쓰신 분들입니다. 저희 센터의 김미진 전문연구위원, 권미소 연구원, 그리고 우리 센터 식구들이 있는데요. 우리 센터 식구들을 위해서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빛나는 오늘이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전

김미진(사회자,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오늘 참석하셔서 축사를 해 주시기로 하셨던 분들께서 도의회 예결위, 전국 체전 등 많은 행사로 부득이하게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멀리서나마 응원한다는 말씀 전하셨습니다. 특히 김한규 국회의원님께서는 국정감사 일정상 참석할 수 없지만 아쉬운 마음을 담아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그 축전 내용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전 대독〉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2022 제주어 포럼 '눌' - 영화·드라마, 제주어를 숨지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애써 주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김순자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 제주어 포럼 '눌'은 소멸 위기의 방언인 제주어와 그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기 위하여 개최되었기에 그 의미가 더 큽니다. 제주어에 관심을 기울여 홍보, 교육, 연구 활동에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주어 포럼〉 개최를 통해 제주어의 보전 및 육성 그리고 대중화를 기원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국회의원 김한규

김미진: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축 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2022 제주어 포럼 '눌' - '영화·드라마, 제주어를 숨지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김순자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 제주어 포럼 '눌'은 소멸 위기의 방언인 제주어와 그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기 위하여 개최되기에 그 의미가 더 큽니다. 제주어에 관심을 기울여 홍보·교육·연구 활동에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주어 포럼 개최를 통해 제주어의 보전 및 육성 그리고 대중화를 기원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국회의원 김한규

개회식

김미진(사회자,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오늘 행사는 1부 영화 상영, 2부 좌담회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부에서는 고두심, 지현우 주연의 영화 〈빛나는 순간〉을 관람하시고, 2부에서는 영화·드라마에서 활동하시는 〈물숨〉의 고희영 감독님, KBS 〈어멍의 바당〉, 〈가옥신〉을 집필하신 김선희 작가님, 〈파친코〉 제주어 연기를 지도하신 변종수 배우님과 함께 영화·드라마와 제주어에 대한 이야기를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들어오시면서 보셨습니까? 제주어 관련 기관·단체가 선정한, 다양한 제주어 관련 영화·드라마에서 뽑은 제주어 명대사를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둘러 보시고, 예쁜 제주어 명대사를 눈에 그리고 마음에 꼭 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너하고 나하고를 제주어로 뭐라고 할까요? 예. '느영 나영'입니다. 이 말을 그리고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많이 없으실 겁니다. 대부분 다 아시죠? 이 제주민요의 후렴구를 사용해서 보사노바 리듬과 젊은 감각으로 새롭게 노래를 부른 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수 루아 씨

인데요. 루아 씨는 제주 출신으로 2015년 디지털 싱글 앨범 '봐사주'로 데뷔했습니다. 청량감 있는 목소리와 음색이 매력적인 가수입니다. 오늘 저희 행사에서 특별히 제주어가 사용된 '느영 나영'과 '봐사주'라는 곡을 불러 주실 겁니다. '느영 나영'은 앞서 소개해 드린 제주 민요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가사를 노래에 담고 있어서 아마 귀에 쏙쏙 들리실 겁니다.

'봐사주'는 해녀분들이 물질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 '망사리', '소살', '테왁' 등의 어휘와 '경 허렌 허민 경 허쿠다, 골앙 몰라 봐사 알주.'와 같은 맛깔나는 표현들이 흥겨운 리듬과 어우러져 있어서 어깨를 들썩이게 되실 겁니다. 특히 '봐사주'가 발매되었을 때 샤이니 종현이 자신의 SNS에서 며칠째 '봐사주'만 듣고 있다면서 제주어의 판타지를 키워준 곡이라고 극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루아 씨의 공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루아(가수)

느영 나영

루아(Lua)

벨이 쏟아지는 마당과 하늘레기 빙 둘러진 돌담
그 트멍 사이로 불어오는 ᄇᆞ름이 좋아요.
우리 ᄒᆞ끔만 쉬어 갈래?

느영 나영 두리둥실 놀고요
낮에 낮에나 밤에 밤에나
상사랑이로구나.

일곱 빛깔 무지개 따라 도두봉 빙 둘레를 돌아
저 고운 바다가 불러 주는 파랑의 노래가
내 맘 ᄯᅳ뜻이 달래 주네.

느영나영 두리둥실 놀고요
낮에 낮에나 밤에 밤에나
상사랑이로구나.

감사합니다. 노래로 먼저 인사를 드렸는데요. 저는 가수 루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주어 포럼〉이 올해 세 번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이렇게 참 중요하고 또 뜻깊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행사를 개최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제주어가 가진 신비로운 매력과 또 소중한 가치들이 알려지고, 또 알아가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쭉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무대를 위해서 제가 발표한 곡들 가운데 제주어로 가사가 쓰인 곡 두 곡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하나는 '느영나영'이라는 곡이고 제가 앞서 불러드린 곡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이어 부를 곡은 '봐사주'라는 노래입니다.

'봐사주'는 제가 2015년도에 처음으로

발표했던 데뷔 싱글 앨범에 실렸던 곡이고요. 이 곡은 제주어 가사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아마 도민 분들 아니시면 거의 외국 말처럼 들리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좀 '이게 매운맛 버전은 아니지 않을까, 좀 잘 알아듣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또 특별히 뒤에 화면에 가사를 띄워 주신다고 하니까요. 같이 불러 주시면 더욱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노래 마지막 곡 '봐사주' 부르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노래 주세요.

봐사주

루아(Lua)

헤에에에이 헤이야이 허이여어×2

너른 바당 벗 삼은 섬 물때 물질헤사주
망사리, 소살, 테왁 들렁은에 물질 가사주
ᄒᆞ끔 인칙엔 벳이 과랑과랑 난게만 ᄒᆞ끔 날 우첨쩌
에헤에 잘 콰니어
헤에에에이 헤이야이 허이여어×4

저기 물허벅 졍 가는 바바리덜 아니꽈?
맞수다. 비바리덜 착허곡 막 곱덴들 헙디다

아니꽈? 맞아마씸 맞아마씸
헤에에에이 헤이야이 허이여어×4

영 허렌 허난 영 헷수다만은 경 허렌 허믄 경 허쿠다×3
영 허렌 허난 영 헷수다만은 경 허렌 허믄 경

골앙 몰라 봐봐사 알주 골앙 몰라 봐사주×8

네, 박수 같이 한번 쳐 볼까요. 이번에 나오는 가사 8번 반복하거든요. 다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앙 몰라 봐봐사 알주, 골앙 몰라 봐사주."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개회식 마무리

김미진(사회자,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루아 씨의 멋진 공연 잘 봤습니다. 다시 한 번 노래를 불러 주신 루아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영 허렌 허난 영 헤수다만은" 그다음 뭐죠? 예. "ᄀᆞᆯ앙 몰라. 봐봐사 알주." 다 한 번에, 한 번 듣고 다들 가사를 다 기억을 하시네요, 이제.

'봐사주'의 노래 가사를 저희가 작업해서 화면에 띄워드렸는데 한글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아래아(ㆍ)를 표기할 수 없어 부득이 'ㅗ'로 표기한 점, 이해 바랍니다. 이런 인터넷과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제주어 표기를 하는 문제도 저희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2. 2.
제1부 영화 상영회
-〈빛나는 순간〉

제1부 영화 상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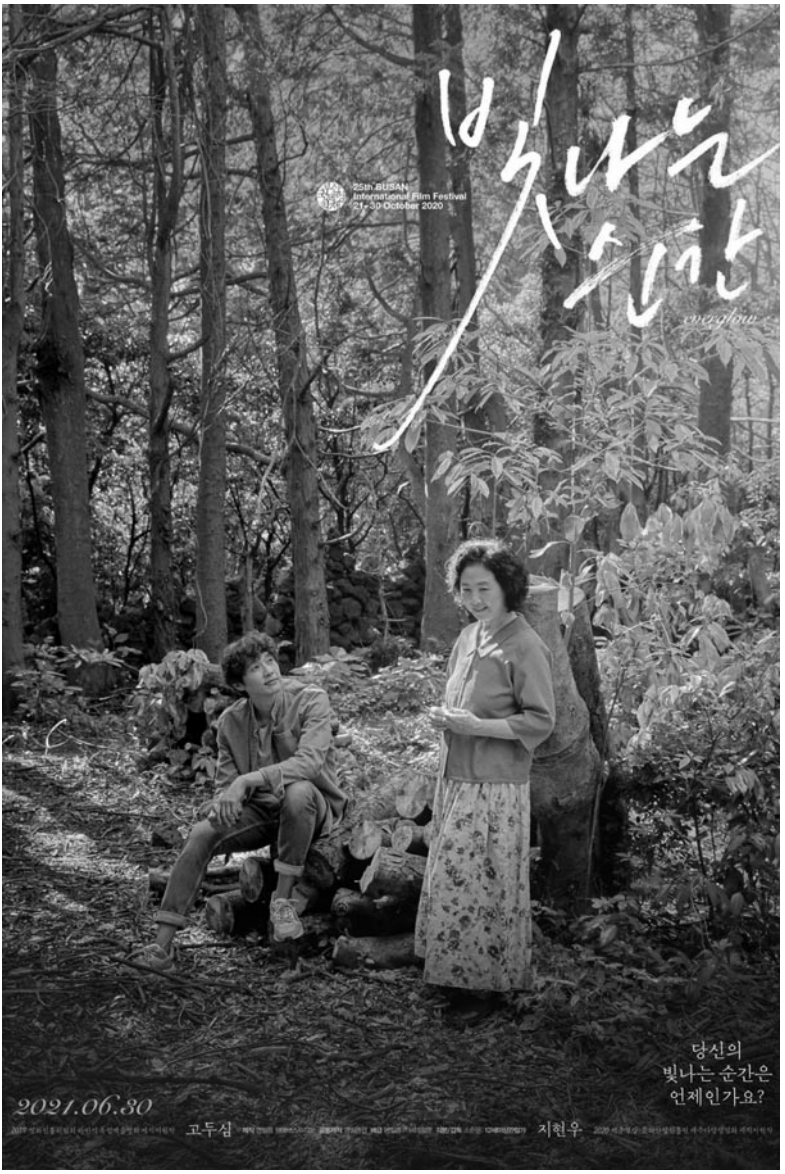
김미진
(사회자,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영화 〈빛나는 순간〉을 보셨습니까?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제주어에 초점을 맞춰서 영화를 봐 주십시오.

고두심 배우가 제주어를 잘하고 누가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영화와 제주어, 그리고 제주와 제주 해녀, 그리고 제주어가 잘 어우러져서 한 편의 영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게 만들어지는가를 관심을 갖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고두심 씨입니다. 그리고 경훈 역의 지현우 씨가 등장합니다. 아, 지금 저희 행사는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화 상영 동안은 유튜브로 송출되지 않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다에서 숨 오래 참기로 기네스북에 오른 해녀 진옥은 성질도, 물질도 제주도에서 둘째가라면 서럽습니다. 진옥은 사고로 딸을 잃었고 집에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는, 아기처럼 돌봐야 하는 남편



영화 〈빛나는 순간〉(2021) 홍보물

이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 고달픈 그녀의 인생에 누군가 비집고 들어옵니다. 바로 육지 거, 서울 방송국 PD 경훈입니다. 경훈도 진옥의 얼굴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성공적으로 촬영해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진옥의 주변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합니다. 진옥은 이런 경훈에게 조금씩 마음을 엽니다.

둘은 어떻게 될까요? 진옥과 경훈이 말하는 빛나는 순간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부터 이 영화 함께 감상하시면서 여러분의 빛나는 순간은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3.
제2부
영화·드라마,
제주어를 심지다삼키다 좌담회

좌장

김순자(제주학연구센터장)

참여

양영식(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

변영근(제주특별자치도청 문화정책과장)

고희영(〈물숨〉 영화감독)

김선희(KBS 제주방송총국 작가)

변종수(문화놀이터 도채비 대표)

좌담회
참석자 소개

김순자(제주학연구센터장)

인사를 좀 나눠야겠네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주어 포럼 '눌', '영화·드라마, 제주어를 숨지다' 좌담회 좌장을 맡은 김순잡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삼 년 전부터 제주어 포럼 '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 번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주제는 '영화·드라마, 제주어를 숨지다'. 좀 제주어답지예? 제주어, 영화가 제주어를 어떻게 숨졌는지는 아까 영화를 보면서 다 느꼈을 겁니다.

좌담회라는 말이 좀 거창해 보일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자리는 최근에 제주어를 사용한 영화와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면서 영화·드라마 속에서 제주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앞으로 영화·드라마 등에서 제주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장입니다.

김순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소개를 하겠는데요. 우리 오른쪽, 왼쪽부터 이제 해 볼까요? 우리 양영식 도 의원님입니다. 여러분



좌담회 진행

들 잘 아시다시피 제주어 하면 양영식 의원입니다. 오늘 굉장히 바쁜 가운데도 아마 제주어 자리가 아니었으면 못 오셨을 텐데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갈까요? 제주특별자치도 변영근 문화정책과장님입니다.

제 왼쪽에 김선희 작가입니다. 제주어 작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고희영 영화감독입니다.

그리고 배우 변종수 님입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름만 소개하는 이유는 다 아시겠죠? 저보다 본인들이 자기소개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드

렸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를 간단히 듣고, 우리 영화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아까 역으로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는 제가 이제 처음에는 양영식 의원님부터 했지만 이제 맨 마지막에 했던 우리 변종수 배우잖아요. 선생님부터 이제 자기소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마개 빼도 돼쿠과? 예, 고맙수다예. 우리 거리두기 일미터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변종수(문화놀이터 도채비 대표)

안녕하십니까? 전 소개할 게 없어 가지고. 그냥 삼십팔 년 동안 연극만 한 연극쟁입니다. 나중에 더 소개할 일이 있으면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희영(영화감독)

그다음 제가 바로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감독 고희영입니다.

'제주 여성이 제주의 역사다'라는 주제로 지금 제주MBC에서 제주 여성 아카이브 생애사 프로그램 '제주 여성 허스토리'라는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고요. 작년에 워낙 뜨겁게 사랑해 주셔서 올해 시즌 2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날 첫 방송이고요. 제주 여자 삼춘들하고 만나면서 정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제주어를 참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지난주에 만났던 분이 한 잠도 못 잤다면서 이런 말

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방송국에 오신 거 얼마나 떨리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막 시골 촌 사름 관덕정에 심어당 앉혀 놓은 거 닮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정감 있는 그런 표현을 들으면서 정말 행복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더 많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순자: 우리 왼쪽 김선희 작가님.

김선희(KBS 제주방송총국 작가)

반갑습니다. 저는 KBS제주방송총국에서 방송 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방송 작가로 일한 지는 삼십삼 년 정도 됐고요. 2010년, 2011년부터 제주어를 가지고 드라마를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은 '매깨라'라고 지금 보물섬 매주 화요일 저녁에 방송되는 〈보물섬〉 속에 '매깨라'라고 제줏말 퀴즈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깨우쳐라'라는 의미로 그리고 제줏말의 표기는 다릅니다마는 '메께라'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저희가 '매깨라'라는 프로그램 제줏말 퀴즈를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순자: 왼쪽에 양영식 의원님.

양영식(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입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이 너무 훌륭하시고 특히나 이제 우리 제주어를 많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들이라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자: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변영근(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과장)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문화정책과장 변영근입니다. 오늘 저희는 아무래도 오늘의 논의가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해서 오늘 좋은 의견을 잘 듣고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처럼
제주어, 표준어 대화가 통하는 세상이었으면

김순자: 오늘 이제 세 분의 영화, 드라마 관계자를 모신 것은 뭐 당연한 거지만 양쪽에 의원님과 과장님을 모신 이유는 저보다 이 자리에 계신,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아리라 생각합니다.

영화 〈빛나는 순간〉 어떻게 관람하셨습니까? 저는 눈물도 몇 번 훔치고 정말 아름답다, 그니까 오늘 관람하기 전에 정말 목적을 갖고 영화를 봐서 그런지 더욱 더 마음에 쏙 다가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두심 선생님이 내뱉었던 말. 진옥, 진옥이 삼춘이죠. 진옥이 삼춘이 내뱉었던 '살암시민' 뭐라고 했나요? '살아진다.' 제가 이제 늘 얘기했는데 '살암시민 살아진다.' 우리 제주 어머니들이 늘 힘들었던 그 파도를 지나고 우리한테 들려주는 말들이 '살암시민 살아진다.'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영화를 보면서 아, 제주 배경도 너무 아름답고 제주 말도 푸지면서도 가슴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미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마는 오늘 영화를 다들 보셨나요? 오늘 영화 보신 우리 변종수 배우님께서는 어떻게 영화를 보셨나요?

변종수: 저는 여기 이제 처음 질문지에 이게 써 있더라고요. 이거 정말 난처한 건데. 왜냐면 제가 삼십팔 년 연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연기를 분석하는 게 훈련이 돼 있어 가지고요. 예를 들자면 일반인들이 못 보는, 예를 들자면 몸 전체가 나왔는데 요 어깨가 연기를 안 하는 어깨만, 연기를 안 허는 것까지도 우리가 분석을 하는 사람이어서 이거 보고 내가 뭘 찾아야지? 막 봤는데 제일 그냥 딱 와 닿는 제일 아쉬운 게 뭐였냐면. 고두심 선생님이랑. 오늘은 영화에는 보니까 그게 좀 잘려 있더라고요.

그게 소재는 너무나 좋은 걸 잡았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걸 잡은 거 같은데 우리 한국 정서에는 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외국인이 놀러 왔다가 고두심 선생님 그 해녀한테 반하는 이런 내용이었으면 더 아름답게 그려지지 않았을까? 왜냐면 우리 정서로 이렇게 딱 맞닥뜨리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일차적이었고.

그다음에 그냥 눈에 띄는, 걸리는 게 또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제주어로 '사랑합니다.'를 뭐라고 합니까? 이랬는데. 제주도에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사랑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변종수: 여기 방청석에 계신 분들 제주도 말로 '안녕하십니까?'가 뭡니까? 그런 말은 없습니다. 제주도 말에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은 없고요. 맨 처음에 본 말 '어디 감수가?'가 이게 '안녕하십니까?'고, '펜안허우꽈'도 '안녕하십니까?'고 '날씨 좋수다'도 뭐 이런 게 '안녕하십니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랑합니다.'….



변종수(문화놀이터 도채비 대표)

제가 MBC 드라마도 했거든요. 〈멘도롱 또똣〉 근데 거기에도 자꾸 뭐 '스랑' 이렇게 쓰니까.

고희영: 그럼 궁금합니다. 제주에서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변종수: 정확한 건 없고요. 예를 들자면.

고희영: 가장 비슷하게.

변종수: 제가 안 그래도 여기다가, 저희들도 보면 드라마를 보면서 각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직역을 막 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상한 단어들이 막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장면에 그 대사를 나한테 쓰라 그러면 나는 "나 느 보고정허다이.", "느 보구정허다." 이런 정도로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데 그걸 어거지의 대사로 "나 느 ᄉᆞ랑헌다." 이러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두 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걸 과연 어떻게 애기할까? 그랬는데 끝날 때까지도 애기 안 하니까 다행이다. 그냥 관객한테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말해 버리니까 그게 좀 마음에 걸리더라구요.

김순자: 예. 뭐 사람마다 또 다를 수도 있고. 요즘은 또 제주어를 꼭 뭐라고 합니까? '사랑'을 'ᄉᆞ랑' 이런 식으로 많이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한 부분들도 있긴 있지만 또 추세구나 해서 또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 김선희 작가 저 옆에서 봤는데 어땠습니까?

김선희: 저도 인제 제주 이야기고, 제주 사람들 그 공간과 이야기가 제주의 이야기여서 참 좋았는데 처음 딱 보면서 초입부에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제줏말 대화와 표준어 대화가 통하는 세상이었으면, 지금. 거기에서는 물론 뭐 이렇게 설정을 그렇게 해 놓은 거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식의 대화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지금 현실이 좀 안타

깝긴 한데. 아무튼 그런 시간이 아마도 금방 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고 보면서 제가 저희도 〈어멍의 바당〉이라고 12부작 드라마를 제작을 했었는데. 해녀 삼대 이야기를 그린 거거든요. 약간 스토리라인이 비슷하긴 합니다. 딸이 기잔데 사실은 어머니가 해녀인 게 부끄러워서, 그리고 엄마는 딸의 성공을 위해서 육지로 보냈는데 기자가 돼서 돌아와서 엄마와 할머니의 삶을 취재하다가 결국은 그 기자마저도 애기 해녀로 다시 또 다른 삶을 시작한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어멍의 바당〉을 제가 쓰긴 했는데 그때 촬영했던 그때 풍광 그다음에 그때 내가 했던 그런 대사들 그런 것들이 같이 오버랩(Overlap) 됐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고.

김선희: 그다음에 아까 김순자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살아지민 살아진다.'라는 게 제가 작년에 11월에 한국일보에서 어떻게 아셨는지 권○○ 기자님이 취재를 하시더라고요. '제일 제주어 작업을 오래 하셨는데 제일 좋아하는 제주어가 뭐냐?'라는 그 질문을 하시던데. 저는 그게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바꿔서 대답한 게 가장 애틋한 말이 '살암시민 살아진다, 살암시난 살아져라.' 이 얘기다. 그 안에는 제주 사람의 삶의 이야기든 역사든 문화든 이런 것들이 아주 집약적으로 들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대답을 했던 그런 기억들도 같이 떠올리면서 봤던 따뜻하지만 너무 가슴 아렸던 영화였습니다.

김순자: 네, 우리 고희영 감독님 말씀하시죠.

고희영: 저 역시 이제 영화를 전체 통으로 순수하게 감상하지 못하는 직업이라서 자꾸 분석해서 보려고 하는 단점이 있고요. 이 영화, 제가 추천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쪽으로 생각해 봤는데.

이 영화의 모티브가 제가 영화 만든 〈물숨〉 이야기를 좀 따지 않았나. 그리고 '물숨' 이야기도 나오고 거기에 '꽃테왁'도 나오고 그런데. 제가 본 거는 아무래도 제주어를 중심으로 한 번 더 봤어요. 봤더니 아마도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제주어가 제주 분들이 너무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이러셔서 노동어, 일상어 이런 거는 굉장히 발달이 돼 있는데 이런 감정 표현어가 참 부족하고 적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냥 정말 순수한 일반 관객 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더 궁금해요.

김순자: 예. 저는 제주어 전공잔데 오히려 더 마음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제주어를 이제 연기를 할 때 배우들이 역시 고두심 선생님이 계셔서 제주어를 제주어답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어색했는데. 생각보다 이 영화 속에서는 제주어 대사도 굉장히 많았고 나중에 자막이 약간 처리돼 있지만 자막으로 표준어 대역한 게 더 우스워지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숨이 괄락괄락 넘어가는' 이런 '괄락괄락'이라는 제주어가 굉장히 그 물을 먹어서 우리가 물을 벌컥벌컥 먹을 때도, '괄락괄락' 얘기를 했지만 숨이 곧 넘어갈 때도 '괄락괄락'이라고 하



고희영(〈물숨〉 영화감독)

잖아요. 근데 그 '괄락괄락'을 '괄락괄락'이라고 않고, 아까 '쿨럭쿨럭'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괄락괄락' 했으면 더 좋았을걸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김순자: 어쨌든 저희 오늘 행사 좌담회가 '제주어를 숨지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여기에 이제 오신 분들이 다 제주어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제주어도 제주어지만 정말 언어라는 게 그 문화가 녹아 있어야 되고 삶이 들어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저는 굉장히 제주도 어머니들의, 해녀들의 상. 그리

고 제주 역사도 같이 이제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이제 마지막에 4·3까지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우리 제주 여성들의 제주 사람들의 아픔까지도 녹여 내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정은 너무 나간다 하는 이런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참 오랜만에 제주 소재로 제주어를 받고 하는 따뜻한 영화였는데 왜 히트를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기는 했는데. 이 기회로 저는 〈빛나는 순간〉을 널리 또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빛나는 순간〉 외에도 제주어가 사용된 영화들은 많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들의 블루스〉. 정말 전국적으로 히트가 돼서 저도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파친코〉 그다음에 밖에 나가 보면 저희 센터 우리 직원들이 손수 다 만들어서 이제 걸어 놓은 대사들이 있습니다.

그 대사를 보면서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들을 마치 만약에 제주어가 어색한 거는 우리 제주어로 잘 바꿔서 한 번 읽어 보면 영화 속에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변종수 배우께서는 연기 지도를 이제 또 많이 했잖아요. 〈파친코〉에서도 그렇고. 우리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 그때도 열심히 이제 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영화 속의 제주어가 아까도 얘기는 했지만.

변종수: 저는 그래도 제주어를, 저는 배신한 사람이거든요, 원래는. 제

가 85년도에 연극을 시작하면서 해 보니까 연극이 표준어 예술이더라고요. 제주어를 버리는 작업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엄청 많이 욕먹었죠. 뭐 "한강물에 밥 좀앙 먹었냐?" 뭐 이런 얘기부터 해 가지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저는 연극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를 했는데 저를 이제 이 자리에 만든 건 또 제주어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에 우연히 제가 연기 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현장 피디(PD)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수현 작가라고 그분 얘기만 들어도 전 떨리던데. 그래서 제주어를 잘하는 여자 배우를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은 없다. 제주도 제주어를 제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다."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그러겠지만 제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전도를 하거든요. 제주어와 표준어는 똑같다. 이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미국 에프비아이(FBI)에서도 전 세계 말로 다 통화를 하면 다 잡아내는데 제주어로 통역을, 말을 하면 잡아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는데 어떻게 이걸 표준어랑 같다고 하냐? "그러면 눈을 감아 보세요." 그랬어요. "밥 먹언? 밥 먹었니? 밥 먹언? 밥 먹었니?" 어떻게 들리냐니까 이게 억양은 좀 비슷하다 그래. 그렇게 똑같이 말하면 됩니다.

변종수: 그래서 저는 지금 〈파친코〉하고 〈인생은 아름다워〉 그다음에 윤여정 선생님하고 〈파친코〉도 같이 하고 〈계춘할망〉도 같이 했지만

저는 랭킹을 뽑으라면 〈인생은 아름다워〉예요. 왜냐면 김용림 선생님이 정말 잘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잘한 게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선생님은 감정선을 굉장히 중요시 하세요. 그러니까 제주어를 막 외웠잖아요. 근데 대사가 생각 안 나면 표준어를 그냥 쓰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그걸 안 거예요. 너무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우리가 최면 당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주 사람들이 제줏말로 골앗닥 표준어로 말헷닥 막 이렇게 섞어서 쓰는 그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요.

변종수: 그리고 또 막 그 제주도는 그런 게 있어요. 동네 심방 안 알아준다고 우리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뭐 누가 가르친다는 소문도 막 있었고 그래서. 그래서 뒤풀이할 때 이제 저희들이 서귀포에서 했는데 선생님 옆에 이렇게 가서 앉았죠. "선생님, 이제는 이실직고 하십시오. 누가 가르쳤습니까?" 하니까. "무슨 말이야, 난 변 선생이 가르쳐 준 거 말곤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고 엄청 열심히 했다." 하고 그러는데 정말 잘하셨어요. 지금 봐도 유튜브(Youtube)나 이런 데 올라와 있는데 보세요, 한 번. 정말 지금도 난 베스트라고 뽑습니다.

김순자: 그 당시에 〈인생은 아름다워〉 있고, 김만덕, 〈거상 김만덕〉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인생은 아름다워〉의 대본을 1차에서 4차. 처음에는 제가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에

있을 때 도청 문화정책과에서 좀 도와 달라고 해서 왔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지도해 줄 수 없느냐. 저는 연기자가 아니거든요. 제주어를 바꾸는 정도 이렇게 했는데 바꿔 주고는 저희들은 갈 수는 없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우리 연기학원 하는 변종수 선생님 한다고 했으니 "어, 그분이면 최고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했었어요. 이제 얼마 전에 그런 일 전혀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게 시발[始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김용림 선생님이 정말 제주어를 잘했다고들 박수를 많이 쳤는데. 그게 나가니까 그 이후에 굉장히 제주어를 가지고 드라마에서도 많이 대사로도 이제 활용도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저거는 좀 어색해, 저거는 잘해." 이런 얘기들을 했었지만 오늘은 비교적 잘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우리 〈어멍의 바당〉, 〈가옥신〉 요 부분은 전체 제주어 대사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작가님은.

언어는 마음속 모든 것을 담는 그릇

김선희: 제가 인제 이거 제주어 작업을 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의 역사, 문화 이야기를 어느 정도 담아야 되나. 그다음에 외국의 드라마를 제줏말로 번역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제주어 드라마가 될까 그런, 약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작업을 하면서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사실은 쉽게 제작을 할려면 육지 배우 좀 이름 있는 육지 배우 부르고, 그다음에 돈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제작비를 그래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늘 고집을 하는 게 그래도 제주 사람이어야지 제줏말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이야기고 제주 사람, 제주의 역사고 우리들의 문화를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어떤 유능한 배우 분들은 물론 암기를 해서 할 수도 있고 표현을 해낼 수는 있겠지만. 저 밑바닥에 있는 그 심성까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오늘 〈빛나는 순간〉 역시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쩌면 제주 사람이 더 빛났던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까지 해 보게 됩니다.



김선희(KBS 제주방송총국 작가)

김순자: 우리 고희영 감독님께서는 그동안 제주어를 드라마 속에 아니면 영화 속에 많이 녹여내지는 못했죠? 어땠습니까?

고희영: 네, 〈물숨〉이 백프로 제주어로.

김순자: 아, 네. 그러네요.

고희영: 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작업도 제주 80세 이상 제주 여자 삼촌들의 인생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터뷰할 때 좀 고민

을 했어요. 그래도 진행자니까 좀 중간 정도는 표준말을 써야 할까? 뭐 할까? 이렇게 좀 고민을 했는데 그냥 만나자마자 제주도 말이 나왔고 그랬더니 그 삼촌들이 너무 편해 하시면서 그 전까지 막 긴장하시다가 "아이고, 너 제주도 아이구나." 하면서 막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거기에서 이제 느꼈죠. 그러니까 어떤 그 언어가 조금 달라지면 틀이 달라져도 그분들이, 결국 언어라는 건 마음속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이구나. 이 그릇이 자유로워지니까 저렇게 옛날 이야기를 재밌게 편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걸 느껴서 정말 제주어의 위력을 날마다 느끼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영화 〈물숨〉에서 백프로입니다, 제주어.

김순자: 제가 〈물숨〉을 봐서. 우리 6년 만에 만났다고 얘기했는데 봤는데 또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끔은 잊어야 다시 또 재생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양영식 의원님. 우리 제주어를 영화나 드라마에 이렇게 녹여낸 영화들을 볼 수도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제 직접 작품을 만들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제주어를 얼마만큼 녹여야 되는지.

양영식: 글쎄요, 제가 오늘 좀 시간이 좀 닿았으면은 '제주어를 숨지다' 이걸 와서 이걸 좀 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나중에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주제에서 좀 벗어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 속에서 어떤 인기와는 달리 지금 제주어의 현실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상당히 걱정이 좀 많이 앞서서.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다지 제주어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주어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물론 이제 중요하다, 우리 제주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제주어는 우리 제주의 언어, 역사, 제주의 정신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라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면서도 며칠 전 이제 제가 이제 교육감한테 이제 질의할 때도 좀 그랬습니다. 제주어의 어떤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제주어라는 것이 어떤 절대적인 사용해야 할 그 어떤 의무감이 없다 하면 우리 10년 전에 유네스코에서 예언한 것처럼 제주어는 이제 사라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좀 노력한들 제주어는 언젠가는 좀 사라지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주어를 좀 더, 좀 늦게 변화하더라도 천천히 이렇게 좀 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양영식: 저는 오늘 와서 이렇게 진짜 너무너무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 게 우리 변종수 배우님, 그리고 우리 고희영 감독님, 우리 김선희 작가님. 이런 분들이 있음으로써 우리 제주어가 그나마 이렇게 좀 지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저도 이제 어떤 제주어 보존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의회에서 회의할 때 중계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의도적으로 제주어를 하려고 했어요. 제주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TV를 보면서

사람들 같은 경우도 많이 제주어에 보다 관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처음에는 좀 했었는데. 그게 우리 저기 속기사 분들 있잖아요. 항상 이제 속기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항상 앞에서 속기를 하기 때문에 제주어로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제주어를 하지 못하고 했는데.

근데 아까 우리 정치인들이 제주어의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건 다 인지를 하면서도 정작 제주어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선출직이 그렇습니다. 선출직들이 상당히 저도 좀 반성을 하는 겁니다마는 표로 연결되는 거 아니면은 이렇게 좀 나서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게 좀 있



양영식(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

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거라면 반드시 좀 해야 될 부분인데.

양영식: 제가 한 달 전에 유네스코 본부를 이제, 프랑스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관계자 여러분들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우리 사라져가는 제주어가 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불씨가 생겼다. 당신들이 2010년에 이렇게 제주어가 소멸될 것이라는 어떤 경고를 해 줌으로써 우리 제주도민들이 좀 더 이렇게 자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래서 이제 농담 식으로 난개발이라든가 환경 같은 경우도 자꾸 좀 얘기를 해 주라. (웃음)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여기 오늘 주제인 영화·드라마하고는 얘기가 빗나갑니다마는 이 제주어는 반드시 보존돼야 될 부분이다. 우리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문화에 대해서만큼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도 프랑스인이다, 아니다라는 그런 구분 기준은 이제 프랑스어를 할 수 있느냐, 구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작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어떤 제주의 정체성, 그 속에 이제 본질은 제주 언어가 있는데 제주인이라고 하면서 정작 제주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라는 게 상당히 좀 지금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주어를 어떻게 앞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이 좀 고민을 하는데. 저는 우리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좀 느끼는데.

양영식: 어떤 영상을 통한 미디어, 영화 이런 것을 통한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고 또 한 가지는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아이들. 아이들이 커오면서 제주어 학원, 제주어랑 이제 노출된 그런 공간이 없고, 그런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도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용해야 할 어떤 절대적인 의무감을 부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에 지난 교육감께 질의하기를 '제주어 교육 과정'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어떤 제주의 학교 교육 커리큘럼에, 정규 커리큘럼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교육감은 이제 좀 직설적인 답변을 좀 피해서. 그런데 정치인들이 할 역할은 자꾸 자꾸 좀 푸시(push)를 앞으로도 계속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양영식: 어쨌든 저는 그 〈우리들이 블루스〉 같은 경우는 좀 봤었는데 물론 이제 캐스팅도 상당히 훌륭했었지만 그 어떤 파급적인 거는 상당히 좀 컸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제주에서도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이 그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우리 제주에 있어서 '제주어 홍보 명예대사'를 위촉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더욱 더 좋은 것은 '명예도민증'을 이렇게 수여하는 거. 저는 이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예도민증이 상당히 실속이 있는 거거든요. 항공 티켓 할인도 좀 되겠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앞으로도 제주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 도의회 같은 경우도 좀 관심을 갖고 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할 얘기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오

늘의 주제하고는 좀 벗어난 것 같아서.

양영식: 그래도 저는 이제 우리 제주어가 앞으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앞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우리 제주가 되는 데 있어서는 문화 콘텐츠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문화 콘텐츠의 힘에 있어서 결국 핵심이 뭐냐 그 고갱, 그 속살은 바로 이제 제주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어 같은 경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제주 문화의 어떤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이렇게 많이 좀 개발을 해서 앞으로 우리 제주가 우리 후손들에게도 아주 풍족한, 특히나 어떤 우리 문화 그리고 이제 예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변종수 우리 배우님과 고희영 감독님, 김선희 작가님 여지껏도 많이 좀 애써 주셨는데 앞으로 좀 더 이렇게 많이 도와 주십사라는 말씀과 함께 두서없는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순자: 우리 양영식 의원님, 아무리 오늘 세 분이 주인공이라고 하지만 "제주학연구센터에서도 좀 더 열심히 해내고 지원하마." 하는 이런 얘기는 없네요.

양영식: 이거 빠뜨렸는데. 저기 제주어 우리 연구소 소장님 우리 교수

님도 와 계시고, 제 친구인 김성용 우리 교장 선생님도 와 계시고.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제주어에 관심 있고 좀 많은 여지껏 이렇게 좋은 노력들을 해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주어를 저도 이렇게 오면서 또 가면서 이렇게 좀 느낄 수가 있는 거는 뭐냐면 조금 더 제주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도 앞으로 자주 마련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센터장님, 오늘 행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자: 왜 그러냐면요. 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 의원님이 많이 애쓰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왜냐하면 쐐기를 좀 박아 놔야 될 것 같아서 제주어 포럼이 지속적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콘텐츠, 영화나 드라마에 제주어를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영화계, 뭐 드라마, 배우들한테 지원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두 분 과장님도 계시고, 의원님도 계셔서 좀 쐐기를 좀 박아봤습니다.

지금이 제주어에 숨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골든타임

김순자: 자, 그 다음에 좀 질문을 하겠는데 이 질문은요, 우리 제주어 팀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제가 이 드라마와 관련해서 인터뷰할 때 제게 주어졌던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 작가님이나 감독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최근 영화·드라마 속에서 제주어 사용이 많이 늘었는데요. 이러한 현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제가 늘 듣는 질문이거든요.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제주어가 많이 나오는데 제주어를 연구하는 선생님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산고예. 이거는 고희영 작가님, 아니 감독님부터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과장님은 좀 제가 뒤로 좀 미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변종수: 근데 그 어쩌면 저는 갑자기 그걸 생각해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미국, 우리나라 연극이 외국으로 공연을 갈 수가 없어요. 왜 못 가냐면 우리나라에서 연기를 가르치는 방법론이 없습니다. 메소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명성황후가 미국에서 뭐 굉장히 히트를 쳤다고 막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제 친구가 그러더니 뻥치지 말라고. 미국에서 환호도 안 했다고. 근데 거기에서 신문에 난 걸 고대로 옮기면 작품에서 뭐 무슨 내용이나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뭘 가장 두드러지게 봤냐면 복식.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시아 이러면 일본하고 중국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역사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우리가 대단한 나라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한 20년 전에만 해도 일본 가서 꼬마들한테 "너 한국 알아?" 그러면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어쩌면은 전라도, 충청도, 경상어들이 아주 일반화됐죠, 이 미디어에 나온 지가.

그래서 귀해진 거죠, 제주어가 굉장히 귀해진 거예요. 왜냐면 작품을 만드는 데 감독님도 계시겠지만 재밋거리라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뭐 배우들이 캐릭터도 있어야 되지만 의상도 있고 배경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른 데서 안 봐 보고 생경한 것들이 일단은 끌립니다. 그래서 제주어들이 그 가치가,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가치들을 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김순자: 예. 우리 김선희 작가께서는.

김선희: 최근에 이제 제주어를 사용해서 만드는 영화나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

니다. 그리고 저, 이제 같이 대본 작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같이 서로 응원하면서 작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주어를 가지고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저는 또 하나 거기에 덧붙여지는 게 제주어뿐만 아니라 제주의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오늘날에 지금, 굉장히 제주어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 볼 때 지금이 어쩌면 지금 소멸 위기 4단계인데 제주어의 생명에 숨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어떤 골든타임이 아닐까, 제주어한테는. 그래서 지금 같이 사라져가는 제주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떤 형식으로든 작업을 같이 해서 좀 더 우리의 제주어가 더 강한 그리고 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순자: 예. 우리 고희영 감독님.

고희영: 네, 저도 그동안 뭐. 어떤 느낌이냐 하면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살아오신 저희 어머니의 노고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느낌 같은 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제주어에 국한된 게 아니고 그 〈우리들의 블루스〉 보면 그 드라마도 인기가 있었지만 그 드라마 속에 그 뭐죠? 출연하신 분들. 제주어를 잘하나 못하나를 실시간으로 분석한 유튜버가 110만 명 뷰를 할 정도로 아, 뭐 누구는 아주 퍼펙트하고 누구는 모자라고 이런 식으로. 그 유튜버까지

도 인기를 얻을 만큼 제주어가 되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하나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추는 언어가 아닐까. 근데 저도 어렸을 때는 제주도가 굉장히 답답하고 싫어서 늘 떠날 꿈만 꿨는데 사실 나가서 살아 보니 제주도만큼 이렇게 그 어떤 인간 세계를 뛰어넘는 굉장히 여분의 세계가 같이 공존하는 곳이 없어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신화도 살아 숨 쉬고, 그리고 늘 자연신을 숭배하는 제주도 사람들의 그 철학, 문화 이런 것들이 조금씩 그 제주도에 와서 풍경만 보던 사람들이 이제 풍경 아니고 그 너머를 보고 싶어하고 그 너머 속에 언어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고희영: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해서 배우고 싶어서 막 찾아오는 분도 있어요, 저한테는. 심지어 몇 년 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 가서 영화 상영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어요. 메일 제목이 뭐냐 하면 "펜안히 오셧수가? 나는 런던에 사는 누구 누구우다." 이렇게 와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그분이, 런던에 사시는데 제주어를 연구하신대요.

김순자: 김성우.

고희영: 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김성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어

박사를 하고 있고 살기는 런던인가 베를린에 살고 그런데 제주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스톡홀름에 상영회를 하러 온 걸 알고 만나러 오고 싶다는 거예요, 제주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주도랑 무슨 연관이 있냐 그랬더니 전혀 없다고. 그래서 정말로 런던에서 스톡홀름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저랑 얘기하고 바로 돌아가는데 그런 거 보고 제가 오히려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제 제주어에 대해서 단순한 호기심뿐만 아니라 연구자들도 생겨나고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매력을 더 잘 못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도 들었고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네. 아시네요.

김순자: 아까 이제 김성우 박사 이야기는 제가 잠깐 이따가 소개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과장님. 예, 이렇게 드라마 속에 뭐 제주어 하면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당황할 수 있으니까. 평소에 제주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문화정책과장님으로서 이제 제주어 정책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제주어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제 죽어간다고 하는데.

변영근: 아무튼 제가 이제 우리 문화정책과로 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오늘 좋은 말씀, 또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김순자 센터장님께서 해 주시고 또 양영식 의원님. 그리고 분야에서 김선희 작가님, 고

희영 감독님, 배우님까지 오셔서 제가 이제 다시 한 번 우리 제주어 보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고.

또 사실 제주의 문화관광 그리고 제주의 발전은, 제주어를 포함한 어떤 독특한 우리 정체성을 지키는 게 지속 가능한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주어가 포함되겠는데요. 아, 그리고 고희영 감독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신화라든가 이런 제주, 독특한 또 문화 이런 걸 발전시키고 보존하자 이런 의견이셨고, 또 작가님 그리고 배우님,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받들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제주어를 보존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또 이것을 발전시키고 홍보해 나가는 데 이제 더욱 노력해 나



변영근(제주특별자치도청 문화정책과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자: 거의 마무리 발언처럼 이렇게 해 주셨는데 또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 분한테 제가 인터뷰를 할 때 받았던 질문을 이제 여쭤봤는데요. 역시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이제, 작품으로서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저는 연구자잖아요. 이제 연구자로서 이야기할 때는 언어에 초점을 맞추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주어가 왜 이렇게 드라마 속에서 갑자기 반향을 일으키게 됐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저는 특수성을 얘기했습니다. 제줏말은 다른 데하고 다르니까. 다르잖아요. 다르면 우리는 호기심을 갖습니다. 근데 같으면 만약에 서울의 문화나 제주의 문화나, 언어는 문화를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제주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제주어가 아닌가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서울, 제주, 부산이 똑같은 언어였다면 이렇게 관심을 가졌을까. 아까 변종수 배우께서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똑같은 복식을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복식이 아닌 언어가 이제 달라서 특이한 거예요.

김순자: 요즘은 제주어, 예전에는 표준화 정책할 때 그랬잖아요. 제주어 하면은 '투박해', '촌스러워'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요, 제가 교육을 가거나 해서 물어보거든요. "제주어 어때요?" 하면 여러분, 제주어 어떻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주어 너무 귀여워요. 아름다워요. 너무 말로 표현하지 못할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뭐 등등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주어는, 제주 문화를 담는 아까 해녀가 나왔죠. 해녀 문화를 이야기할 때 제주어가 없으면 그 표현이 될까요? 신화, 민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우리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그리고 우리 루아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주 사람들의 삶이다, 영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제 어학적으로 제주어는 중세어가 살아 있고 등등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거 안 같아요.

매체 속의 제주어,
그 고유성을 인정해 줘야

김순자: 저는 아까 테왁이, 영화 속에서 나온 테왁이 생명줄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저는 제주어는 '제주 사람들의 목숨이다.'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목숨이 끊겼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제주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과 같은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방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희: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처음 제가, 제주어 드라마, 제주어 드라마타이즈(dramatize)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게 2011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방송에서 제주어, 특히 사투리를 쓰는 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제주어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때는 〈이야기 제주사〉라고 해서 제주의 역사를 중심으로 고대 탐라에서부터 근현대사까지 해서 저희가 한 3년 2개월 정도 다뤘는데, 이거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 제주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걸 거기에, 시청자들의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조금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드라마타

이즈(dramatize)를 넣었는데. 요거를 표준어로도 사실은 해 봤습니다, 그 에피소드 제작을 표준어로도 해봤는데. 그것이 제주어로 제작을 했을 때와 표준어로 제작했을 때 시청자들의 반응이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제주어로 제작을 해서 드라마타이즈(dramatize)를 넣었을 때는 "아, 기라, 맞아. 저거 우리 얘기라." 이런 식의 반응이 오고 흥미를 더 느끼고 관심을 더 두는 이런 반응들이 즉각즉각 나타났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송에서는 약간 모험적인 시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2011년도였으니까. 하물며 이제 내 고향 소식을 전하는 리포터가 삼춘 만나러 가서 잠깐 사투리 나오면 "저 리포터는 왜 방송에서 사투리를 써? 표준어 써야지." 이런,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시기였고.

김선희: 또 하나는 2014년도에 제가 그 〈멩질 먹게 혼저 오라〉라고, 그 위에다가 '제주어 드라마'라는 타이틀 밑에 〈멩질 먹게 혼저 오라〉라는 드라마를 쓸 때 제주어 드라마라는 거를 넣었더니,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왜 '제주어 드라마'냐? 왜 제주어냐?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이것처럼 니네 딴 나라냐? 왜 제주어냐?"라는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보고 나중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 그 프로그램을, 그것도 저희가 아마 제가 자신하건데 98%까지 제주어를 총동원해서 제가 썼던 기억이 있는데 드라마를 보고 나

서는 "맞아, 제주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자막, 같은 한국말임에도 불구하고 자막 없이는 절대 볼 수 없는 제주만의 독특한 언어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제주의 민속이 됐든 역사가 됐든 문화가 됐든 모든 게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주어라고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김순자: 예. 그 부분에는 약간 부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저도 지금까지도 계속 듣는 게 "왜 제주어야? 제주방언이지." 또 어떤 때는 "왜 제주방언이라고 써? 제주어라고 써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두 가지 다 쓰고 있어요. 학문적으로 제주방언 연구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제주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좀 주체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에서 우리가 쓰는 말을 방언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제주어라고 하면 좀 더 소속감도 있고 하지 않을까 해서, 더 이상 용어를 갖고 왈가왈부할 성질은 아니지 않는가? 왜냐하면 제주어든 제주방언이든 제주 사투리든 다 우리들이 제주에서 이야기 하는 거다라고 해서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고희영 감독님.

고희영: 그거와 연관해서 사실 제가 그 영화를 하면서 그림책 작업을 했는데 그림책이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어요.《엄마는 해녀입니다》

라는 그림책인데, 그게 지금 한 22쇄까지 찍히고 그다음에 전 세계 5개 국어로 번역이 됐는데.

그때 화가가 에바 알머슨이라는 스페인 화가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화간데 어느 날 "스페인어로 번역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스페인어와 더불어 카탈루냐어로 번역을 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도 잘 몰랐어요, 그 의미를. 아니 "스페인어는 이해하는데 왜 카탈루냐어로 왜 번역을 해야 되지?" 그랬더니 그 역사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줬는데, 그 지역이 스페인의 북동부 지역에 있고 어떻게 좀 약간 확장을 해서 생각하면 우리의 탐라국 같은 그런 자치 지역이고, 고유의 언어를 갖고 있는데 카탈루냐어라고 스페인 사람들도 지금도 명명을 하고 그것을 굉장히 존중해 주는. 그러니까 '이 언어는 우리의 굉장히 어떤 독자적인 민족 언어야.'라는 자부심을 스페인 사람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인어와 카탈루냐어로 번역이 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사실 좀 부끄러웠어요.

제주 해녀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5개 국어로 번역이 되는데 왜 제주어로 내가 이거를 제일 먼저 만들지 못했었나라고. 그런 좀 부끄러움이 있었고. 출판사에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조만간 될 거는 같습니다만. 그래서 그 카탈루냐어처럼 제주어가 갖는 그 고유성을 인정해 주는 그거는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순자: 요즘 보면은 영화·드라마, 제주어 이야기들을 많이 하긴 해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제 제주어가 많이 나와야 되고 제주 문화를 담보한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와야 될 텐데.

제줏말로 제주의 이야기를 할 때 큰 설득력을 얻어

김순자: 요즘 보면은 해녀, 오늘도 보면 해녀 이야기 많이 나오고 뭐 아까 멩질 먹으러, 〈멩질 먹게 흔저 오라〉 하는 이런 명절 얘기, 제주의 독특한 문화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앞으로 영화 속에, 드라마 속에 녹여낼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제 배우인 입장에서 앞으로 하고 싶은 제주어 작품이든 제주 문화 작품이든 있다면?

변종수: 아니, 그걸 떠나서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처음에 "고두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제주어를 먼저 쓰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주장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경상어나 전라어, 뭐 무슨 충청어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방송에 노출됐다고 생각하지만 별로 안 되었습니다. 한 20, 30년밖에 안 됐어요.

그 영향력이 누구냐면 추송웅 선생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경상도 말을 쓰는데요. 예전엔 배우들에게 다양한 배우가 없어요. 그러면 추송웅 선생님이 그나마 연기를 잘하니까 대본을 주면 계속, 지역어로 쓰는 거예요. 자기가 연기하기 가장 편하니까 그렇게 쓰는데, 배우들이 급이, 점점점점 급이 높아갈수록 배우의 권한이 좀 많아지



좌담회 진행

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한 번 쓰던 게 지금 굉장히 일상적으로 쓰이게 되는 거거든요.

변종수: 그래서 이번에 했었던 뭐, 이병헌 씨나 이런 분들이 지금 했잖아요. 그럴 때 좀 제주어를 욕심내지 않고 제대로 쓰지만 적게, 적게 쓰고 표준어랑 쓰면서 이게 거부감 없이 쓸 수 있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김수현 작가 선생님 거 할 때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난 아무 욕심 안 내고 '무사?' 이 언어만 제주어로 각인되면 나는 성공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그 생경한 언어들을 어떻게 다 뭐 그걸 듣겠습니까. '무사?' 이것만 계속 집중적으로 써 줘도 그게

잘 안 되긴 했지만 어쨌든 '무사?' 이거 하나로부터 출발하면 좋겠다 싶고.

변종수: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도청에 계신 분들이, 아까 저, 양영식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그냥 도에서 홍보할 때 뭐 연예인이든 이런 사람도 쓰는데 제주어 한 단어씩만 집어 넣고라도 막 쓰고, 뭔가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되는 게 가장. 예.

지금 우리나라 난리잖아요. 이번에도 〈우리들의 블루스〉 한 번 훑고 가니까 그다음에 〈우영우〉. 〈우영우〉 제주도 찍었으니까 그, 장소만 모아 가지고 지금 난리던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서 고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가장 제주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저는 일개 배우라서 우리 감독님이나 우리 작가님이 불러 주지 않는 한은 우리 스스로 뭘 하겠다라고 못하는 사람들이어서,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순자: 김선희 작가는 어떤 작품을 하고 싶으세요?

김선희: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뭐 드라마 전문 작가는 아닙니다. 저는 교양 프로그램 작가로 시작을 해서 이제까지 왔고. 2010년부터 이제 어쩌다가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제주어 드라마'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교양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인 다큐에서 다룰 수

있는 것들을 '제주어 드라마'로.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더 설득력을 키울 수 있는 거니까. 특히나 제주 이야기 제주 속에 저희 로컬 프로그램의 경우는 제주도 내에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설득력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주의 이야기, 역사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주어 드라마화.

제가 그 전에 속담, 매주 속담 3개씩 정해서 그 주제가 만약에 해녀다 그러면 해녀에 관련한 속담 3개를 정해서 매주 20분 좀 넘게 해서 제작을 했었던 경우도 있고요, 거기에는 해녀뿐만 아니라 오만 제주의 문화들이 삶의 문화들이 녹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작을 했었는데,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조금 진짜 작심하고 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김선희: 그다음에 어떤 제주인들의 예전에 살았던 생활사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신화 부분도 지금 〈강림〉이나 아니면 〈가옥신〉 같은 경우 작업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강림〉의 경우는 올해 추석 때 방송을 했는데, 본풀이에 있는 그 강림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가옥신〉의 경우는 제가 아주 착실하게 그 '가옥신 본풀이'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각색을 했었던 부분이고, 이번 〈강림〉의 경우는 등장인물만 따와서 다른, 거기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다른 이야기로 꾸미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어떤 제주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주의 이야기는 제줏말로 하는 게 가장 설득력 있고 그리고 작업을 하는 저도 제일 보람 있는 작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순자: 감사합니다. 제주 여성들의 삶을 다루고 있는 고희영 선생님은?

고희영: 저는 뭐 거창하게는 아니고, 그냥 제가 저한테 주어진 일을 통해서 그냥 묵묵하게 하는 편인데요. 최근에 완성한 영화 〈물꽃의 전설〉이 부산영화제에 초청받았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부산영화제로 건너가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은 96살의 제주도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를 소개할 때 "이 영화에는 소멸되어 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주어, 하나는 해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제주 바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실 영화 작업하면서 모두 이제 제주, 정말 저도 처음 듣는, 굉장히 옛날 제주도 말도 많아서 몇 번씩 여쭤 보고 이제 하는데 보통 영화에는 자막이 안 들어가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후반 작업이 사실은 좀 고돼요. 이 자막을 일일이 넣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고됨보다도 사실은 더 어려운 작업이 뭐냐 하면 아 이거는 제주도 말로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정말 끙끙거리거든요.

고희영: 뭐, 예를 들면 이번 영화에 그 할머니가 이런 말씀하세요. "아유, 이 일은 막 못 젼딘 직업이지."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못 젼딘." 근데 이게 "못 견딘 일이야."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힘든 일이야."도 아니잖아요. 아, 이 느낌을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

야 되지? 항상 걸리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고. 또 하나는 "나는 제주 바다가 난, 난 죽어도 괜찮은데 저 바당을 두고 가는 게 너무 아까워." 이게 아까워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복합적인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번역할 수 없는 게 너무 괴로워서 그 번역 작업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결국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아, 제주어와 표준어는 하나 하나 똑같이 공존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제주어가 훨씬 더 풍성한 말들을 갖고 있구나. 전혀 대비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은 있으나 그 〈물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고희영: 이제 해외 영화제에서 한 20여 개국을 다니다 보면 항상 전 세계 어디든 제주 분들은 너무 근면하셔서 어느 도시에 가도 꼭 계세요, 제주 분들이. 그래서 영화를 보러 찾아오시는데 오셔서 제주도 말이 들리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울고 가십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우셔요. 막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뒤에서 생각을 해요. 아, 언어라는 건 정말 엄청난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소통이 아니라 그, 그 제주의 바람 소리도 그 안에 있는 것 같고 막 마음, 철학, 정서 이게 막 이렇게 퇴적층처럼 쌓여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아 영화 만드는 일이 고되기는 하지만 이 제주어를 전 세계에 들려 드릴 수 있어서 그리고 저분들을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게 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변종수: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뭐냐면 〈파친코〉 시작하기 전에 예고편을 딱 만들었어요. 전화들이 막 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미국 드라마에서 "재기재기 글라. 재기재기 글라." 이 대사가 제주도 사람 귀에 팍 꽂힌 거여. 뭐 미국에서도 막 전화가 오고 막 그런 거여. 오, 그럴 때. 그리고 〈인생은 아름다워〉 했을 때도, 너무 잘 봤다고 막 이렇게 전화할 때.

그리고 저도 그 할 말이 생각났어요. 제가 그 이번에 MBC에서 그 도민 배우를 40명 모집, 뽑아 가지고.

김순자: 소문 들었습니다.

변종수: 예, 그거를 지금 5부작. 이 요번에 그 10월 10일 날 하는데, 거기에 제주도에서 내노라 하는 그 끼 있는 사람들이 40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고 그냥 흩어지기가 아쉬워서 내년에 제가 제주어 마당놀이, 그 예전에 MBC 마당놀이 아주 재미있는 제주어 마당놀이 내가 "한번 합시다." 제안했거든요. 그거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도와 주시면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웃음)

김순자: 아, 정말 이제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학문적으로만 접근을 하는데, 오늘 우리 작가님, 감독님, 배우 요 세 분을 이제 만나니까 정말 '제주어를 더욱 더 살려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죽게 내 둬서는 절대 안 되겠다. 왜? '제주는 곧 제

주어고, 제주어는 곧 제주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시간만 제가 봤다봤다 하는데 정말. 제줏말로 이제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이제, 그 행정이나 제도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주어만이 아니라 아까 고희영 감독님 얘기했잖아요. 오늘 우리 영화 속에서도 제주어가 나왔고, 아까 소멸되어 가는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제주 바당, 그 물속 깊이 백화 현상해서 완전 하얀 돌만 드러나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가슴이 좀 쓰라리더라고요. 그리고 해녀, 얼마 전에 저희도 해녀 관련해서 이제 학술대회도 열었고, 제주 바다가 지금 많이 아프잖아요. 해서 그 모습이 오늘 영화 속에서도 담겨 있고, 우리가 또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 언어만이 아니라 제주의 환경 문제, 제주의 민속 뭐 또 다른 자연 이런 것들도 함께 가야되는 거지, 어느 특정한 하나만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순자: 길어졌는데요. 아까 이제 그 김성우라는 선생님을 제가 간단히 소개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게, 이분은 여러분들, 〈국제시장〉 영화 봤었잖아요. 독일인 아버지와 광부로 간, 아! 독일인이 아니에요. 독일에 간 아버지는 광부요, 어머니는 간호사, 파독 간호사예요. 그 사이에서 난 아들입니다.

근데 어느날 제주어를 연구하겠다고 해서 제주도에 와서, 연구를 해서 석·박사를 전부 제주어로 써서 소멸위기 언어로 써서 이제 해서 이제 영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요.

이 선생님이 '나 성우우다. 선생님 펜안허우꽝?' 이렇게 해서 편지

가 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늘 느꼈던 게, 정말 이국만리 땅에서 자란 이 친구가, 전혀 제주어를 들어 보지 않은 상황에서도 요렇게 자연스럽게 잘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뭐지? 여기 교육 당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뭘까? 충분히 살릴 수 있다. 그 친구 보면서 늘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표준어를 쓰는데 그 친구는 '선생님, 나 성우우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때는 아까 부끄럽다는 얘기했지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도 제줏말 잘 쓰기는 하지만.



좌담회 진행

고희영: 저기 하이라이트가 하나 있는데, 메일을 보냈는데 맨 뒤에다가 이름이 아까.

김순자: 김성우.

고희영: 김성운가.

김순자: 안녭니다.

고희영: 안넴.

김순자: (웃음)

고희영: 거기서 진짜 한 번 더 감동을 느껴. 안넴.

김순자: '드립니다.' 해서 '안넴.' 이렇게 합니다.

한마음 되어 제주어를 쓰는 일이 곧 제주어 보전의 길

김순자: 자, 너무 길어졌어요. 우리 시간을 좀 봐야 되겠는데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떤 지원들이 있을까요? 요거는 우리 국장님. 앞으로 제주어만이 아니라 제주 해녀도 살려야 되고 제주 문화 뭐 다 살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변영근: 아무튼 지금 여기서 뭐 딱히 뭐 하지만은, 아까 고희영 감독님께서 그 스페인 그 까탈루니아 지방. 사실 제가 지난 8월에 스페인, 제주 올레길하고 스페인 산티아고길에 자매결연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 산티아고에서 느낀 게 바로 그겁니다. 저희가 상징물을 '돌하르방'하고 제주 올레 '간세'. 그, 그 표식을 저 산티아고에 세웠는데.

거기서 스페인 측에서 요구한 사항이 스페인어, 한국어, 영어 그다음에 그 산티아고는 이제 갈리시아주거든요? 그래서 그 갈리시아어로 꼭 해 달라. 그렇게 요청해서, 그 당시에는 아주 그게 규격이 크면 스페인까지 가는데 한 달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규격이 크면 만들기도 어렵고 가는 것도 어려워서 그때는 좀 서로 막 다퉜는데.

이제 생각하니까 우리도 이런 거 할 때 제주어로 하면 어떤 창작

물. 그니까 영상 이런 거는 소리나 이런 걸로 남고, 또 이제 그게 도심이든 제주에 어떤 상징물은 또 오래 간직할 수 있으면 뭐 그런 것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이런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을 주시면 저희 그 행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적극 검토해서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뀌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순자: 지방어를, 저기 관광지 안내판에도 다 같이 이렇게 쓰더라고요.

변영근: 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순자: 해서 우리 의원님. 제도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 주시겠습니까?

양영식: 저는 저기 앞에 시계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다음 일정이 너무 좀 늦어 가지고. 어쨌든 아,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너무 이제 좋은 말씀들 해 주셔서 '저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좀 반성을 좀 해 봅니다.

사실 제가 한 4년 전에 그 「제주어 육성 조례」안을 이제 개정을 하는데, 개정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문화관광해설사들을 대상으로 제주어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제주어를 알리는 데에 있어서 홍보 대사들인데 사실, 그분들이 표준말로 쓰게 되면 '과연 제주의 문화를 제대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그

래서 이제 조례안을 개정을 해서.

양영식: 사실 그렇잖아요. 이를테면은 이제 뭐 4·3공원에서도 이제 4·3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 당시의 그 상황 그 역사적인 상황을 제주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이게 그 4·3의 문화가 상하지 않고 이제 그대로 전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문화관광해설사 그분들이 어떤 그 역량 이런 데 있어서도 상당히 제주어 교육이 좀 필요하고. 항상 좀 가까이에서 이렇게 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까탈루니아어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제 웨일즈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 웨일즈어도 거의 이제 사라질 뻔하다가 살아났는데, 결국 어떻게 이제 살아났느냐? 그 지역 그 공동체가 한마음이 돼서, 한마음이 돼서 살려 보자 해서 영어 이외에도 이제 웨일즈어를 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내서 이렇게 결국 이제 소생을 했는데.

양영식: 우리 제주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년 유네스코에서 이제 소멸위기 언어다. 이렇게 등록 발표한 이후에 좀 관심 있고 좀 나아진 거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에는 우리 도민들이 이 제주어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이게 '꼭 보존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게 좀 공론화가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나. 그 공론화가 되면은 어떤 정책 결

정을 하는 지사님이라든가 교육감님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쉽게, 쉽게 이렇게 결정이 될 텐데 '아직도 갈 길은 멀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저는 특히나 방송의 영향이 상당히 좀 크다고 좀 생각이 되어서, 로컬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제 지역 방송, 지방 방송이 상당히 좀 잘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작 어떤 뭐 광고라든가 이런 게 좁혀진 상황입니다. 지역 방송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는 변영근 과장님도 와 계신데 지자체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모색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어떤 그 제주어가 소멸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살려내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있어서 모든 분들이 좀 제주어에 대한 어떤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단 생각을 갖고요.

양영식: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저기 집행부를 만날 때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사한테도 그렇게 얘길 해요. 인사할 때 항상 이제 아침에 저기 그 회의를 하는데, 인사를 시작을 할 때 제주어로 하라. 그리고 이제 이 회의 전에 그 제주도 노래를 부르거든요. 제주도 노래를 부를 때 같은 경우도 제주어로 하라. 1절은 그냥 표준어로 하되 2절은 제주어로 하라. 그래서 좀 실행이 되는 데가 지금 서귀포 시청입니다. 서귀포 시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도 마무리를 제주어로 "어떵 폭삭 속앗수다예." 허믄 아, 이렇게 제주어로 하게 되면은 그만큼 정감도 있고 또한 이제 모든 게 어떤 시발점은 저

는 공직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고 좀 생각이 돼서.

우리 변영근 과장님도 와 계시지마는 공직자들이 선행하고 먼저 이렇게 다가가고 먼저 제주어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졌을 때 반드시 저는 이제 제주어가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제주어 쓰기, 나아가 《제줏말 소리 사전》 발간을 바라며

김순자: 예, 우리 하영 쓰게예. 우리 이젠 객석으로 좀 넘겨보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제주어를 보존하고, 지키고 활용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도 오셨고, 제주어교육연구회, 제주어보전회, 제주어연구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관계자들도 계십니다.

자유롭게 이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오늘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소감이나 아니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혹시 질문이나 혹시 있으면 몇 분 받아보겠습니다. 자유롭게.

제가 우리 제주어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장학사님. 제주도교육청 장학사님. 제주어 담당 장학사입니다.

이영림: 질문이라고 하긴 그렇구요. 제주어 교육할 때 저희들 발간 자료에도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하다 보면은 이제 제주어를 좀 '졸바로'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시는 분들이 이왕이면 바른 제주어를 영화나 드라마에 넣으셨으면 좋겠구요.

그다음 아까 의원님 자꾸 말씀하셨는데 나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제주어 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제주어에 대해서 관심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12월 그 '제주어 교육 자문 위원회' 전에, 이런 현장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주어 교육 교원 연수'를 지금 올해 2회 진행하고 있고, 탐라교육원에서 기본 과정, 저희 교육청에서 심화 과정 이렇게 해서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제주어를 이렇게 무엇보다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도 중요한데, 그 외에 제주어 교육 인력풀도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제주어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 주시면은 그걸 잘 수렴해 가지고 내년 「제주어 교육 활성화 시행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나? 음. '제주어 말하기 대회', 이런 거 한시적으로 이렇게 구색 갖추기 위한 이거 하지 말고, 그냥 3월 달에 아빠랑 애들이랑 아무나, 지네 친구끼리 해도 되고, 가족들끼리 해도 되고 막 해서. 달달이 막 이렇게 예선전 거쳐서 12월에 축제처럼 이렇게 제주어를 아무나 막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학교에 전 '제주어 말하기 대회' 정말 많이 가르치거든요?

이영림: 그러시구나예.

변종수: 근데, 제가 가르치믄 열 번이면 일곱 번 제가 일등합니다마는.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기회를 많이 부여해야 되는데 제일 공부 잘하는 애 멧 명 뽑아다가 그 제주어 말하기 어설픈 제주어를 말하는 게, 제주어 말하는 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니까 3월부터 해서 아무나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이영림: 지금 '제주어 말하기 대회'는 사실 그 '탐라문화제 제주어 말하기 대회'는 권장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교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사실 저희들도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대신 '제주어 동아리'를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제주어 동아리가 일회성이 아니고요. 이제 3월부터 꾸준히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애들이 활동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마을 경로당이나 어른신들 모시고 하는 활동, 그다음에 뭐 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나 연구소에 제주어 선생님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 모시고 공부하는 활동도 하고 이렇게 탐구하는 활동도 하고 있는데. 그런 '제주어 동아리' 쪽으로 활성화시켜서, 애들이 일상생활에서 제주어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은 많이 만들려고요.

이영림: 사실 저도 표준어를 쓰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제주어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아! 제주어 들으면 어색하다.' 이런 그런 생각은, 느낌까지는 있거든요. 제주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선생님

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계속 얘기하셨던 부분, 우리 제주도민 전체가 가정, 지역 사회, 뭐 학교 이렇게 해서 모두 제주어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도 많이 만들어 주고, 교육에 관심을 갖고 제주어를 쓰는 아이들에게 적극 지지해 준다면은 그래도 좀 나은 이렇게 제주어 교육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 관련해서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아 제가 작업을 실제 대본 작업을 하면서 보면, 대본을 배우한테 보내면 "아래아(ㆍ)를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나요?" 바로 전화가 오거든요? 작가님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ㅏ' 해야 돼요? 'ㅓ' 해야 돼요? 'ㅗ' 해야 돼요?"



좌담회 의견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고. (웃음) 그래서 저는 'ㆍ' 영어 발음기호 'ɔ' 거꾸로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지금 현실이 제주 사람들조차도 아래아(ㆍ)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게 현실인 거고.

김선희: 그리고 제가 작업을 하려고 느꼈던 거는 아, '《제줏말 소리 사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한테는 사실은《제줏말 소리 사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신데, 85세 된. 저는 모슬포가 고향입니다. 제가 작업을 하다가 막히면 여쭤 보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기억 남는 게 뭐냐면 "아우, 자이 무사 정 말을 정 작작 그냥 내부쪄 불엄시?" 처음에는 저도 뚱 해 가지고 했는데, '내부찌다'가 밀어 버리거나 던져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자기 말을 딱딱 차단해 버릴 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아이고, 저거 보라 저거. 콧대에 바농 세왕 아이고, 어떵 헐 거니?" 이거는 제가 사춘기 때 많이 들었던 얘긴데. 얼마나 예민하면, 콧대. 이 높은 콧대 위에 바늘까지 세워서 그렇게 예민하게 굴었을까?

그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7, 80대의 어르신들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인제 50대 중반이지만 60대에서 저희 대까지는 어찌 어찌 할지 모르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런 말들을 이제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제줏말 소리들을 모아서 어르신들이 하시는 그 제줏말들을 모아서 표현이 그

니까 단어가 됐든 뭐 관용어가 됐든 요런 것들을 직접 들을 수 있게. 직접 들어야지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김선희: 이거는 제줏말은 원고를 주면 눈으로 봐서는 절대 모릅니다. 저는 주면서 늘 "소리 내서 읽어 봐라."라고 얘길 하는데 그 소리를 들어서 내가 익힐 수 있도록 그런《소리말 사전》소리말, 말로 된 음성으로 된 사전이 하나 있었으면 어떨까 싶고.

지금 7, 80대 어르신들이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제주어라든지 그 제주어에 담긴 그런 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다 구술 채록을 하더라도 물론 지금까지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주일에 한 시간만이라도 제주어 교육을 실천한다면

김순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에게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 그래도 못 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한 20초씩만 드릴까요? 예, 2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서부터 쭉 오겠습니다.

김선희: 언어는 사실은 밑으로 흘러야지 이게 전승이 되고, 보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중간 세대여서 저희는 위에 지금 7, 80대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모으는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또 아래로 그것들을 전해 줘야 되는 중간 세대에 있습니다.

근데 언어가 살아 있으려면 아래로 흘러야 되기 때문에 어떤 교육적인 아까 교육청에서 오신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제주어의 경우, 제주 학교의 경우, 제주어를 교과 과정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지금 뭐 방과 후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지 실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쓰던 말들이 저한테 오고, 저한테 온 말들이 아들한테 가고 손주한테 가고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적인 부분을 조금 더 정책적으

로든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고요. 좋겠습니다. (웃음)

김순자: 예, 제가 자르지도 않았는데. (웃음)

.

변종수: 아, 제가 먼저 할게요. 그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그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그다음에 일반인들한테 가르치거나 영화나 드라마를 할 때 근데 인제 사람들이 그 제주어를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그 편견? 뭐 하여튼간 그런 게 있나 봐요. 예를 들면 아까 저 어르신께서도 아래아(ㆍ) 발음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아래아(ㆍ) 발음을 어르신이 아무리 가르쳐 줘도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꼬마들은 더 더욱이나.

왜냐하면 우리는 말하는 경로와 듣는 경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외국인이 와서 본토 발음 'r'을 아무리 잘 가르쳐 줘도 우린 따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니까 그걸 인식하고 발음은 너무 그렇게. 그러믄 더 더욱이나 제주어를 멀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제주어를 가르치시는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제주어를 따라하게 하지 마라. 저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대부분 다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분들이 따라하게 만들어요. 왜! 따라하게 만들면 제주어는 어떻게 들리냐면 "어떵 허연, 저떵 허연." '제주어 말하기 대회' 한 번 가 보십시오. 정말, 모든 팀이 다 이렇게 리듬 만들어서 합니다. 그니까 말하는 경로와 듣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제줏말을 표준어랑 거의 유사하다고 가르쳐 주고 그 리듬에 제주어를 가르쳐 주는 게 가장 잘 지도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들의 블루스〉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배우들한테 너무 많은 메시지들이 가니까 이 배우들이 막 혼란스럽고 뭐 그랬단 얘기도 들었고요. 근데 고거를 좀….

고희영: 네, 저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그 제주 지역 영화의 경우 제주어를 활용할 경우, 사용할 경우 가산점을 주자."라는 제도를 계속,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무리 하자면 어, '살구꽃 핀 마을은 어디나 고향 같다.'고 이호우 시인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주어를 쓰는 여자 삼춘들은 누구나 어머니 같습니다. 진짜 제주어, 그 감정이 있는 제주어. 어머니의 제주어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 한글날 아침입니다. 제주MBC에서 상영하는 〈제주여성 허스토리〉. 많이, 네.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어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순자: 자, 과장님.

변영근: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무튼 오랫동안 자리해 주셔서 고맙고 좋은 의견들 잘 반영하고 제도적으로도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자: 예, 하다 보니까 이제 긴 시간이 지나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된 예. 들으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부탄' 관련 책을 하나 읽었는데 정말 제 가슴에 콱 박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부탄 다 아시죠? 부탄에서는 부탄의 힘이 전통을 지키고, 부탄 언어를 지키고, 그리고 문화를 지키는 것을 국가 이념으로 한답니다. 네, 부탄 사람들은 지금 영어로 모든 대화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하루에 한 시간만큼은 교과과정에 '종카어', '종카어'라는 이제 부탄어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아! 우리 학교에도 교과과정에 많은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일주일에 한 시간만이라도 제주어를 가르친다고 한다면



김순자(제주학연구센터장)

죽어가는 언어가 아니라 살릴 수 있는, 살아난 언어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봄수다.

제주학연구센터는 내년에도 좋은 주제를 가지고 제주어를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2023 제주어 포럼'으로 돌아오쿠다. 이걸로 행사를 마칠 거고예. 다덜 속아수다예. 계신 분들 전부 나와서 같이 기록으로 남깁시다.

3.

기타
행사 관련 기록

3.1.

영화·드라마 속 제주어 대사 전시

2022 제주어 포럼 '눌' 영화·드라마, 제주어를 솝지다솝키다

함께한 사람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연구회, (사)제주어보전회,
(사)제주어연구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제주학연구센터 등

2022 제주어 포럼 '눌' 영화·드라마, 제주어를 솝지다솝키다

여기에 전시된 제주어 대사는
영화드라마 속에서
배우가 사용한 제주어를
그대로 듣고 옮긴 것입니다.

사름은 혼 가지만 졸바로 허민 된다.
똑 ᄒᆞ나.
그게 무시거가 됐엇든
좌우지간 최고가 됐민 됐어.

드라마 〈파친코〉, 한수 아방(정웅인)의 말 중에서

마, 이거 ᄒᆞ나 먹으라.
멩수네 언치냑 식게 넘어낫젠 ᄀᆞ정 왓어라.

드라마 〈어멍의 바당〉, 해녀(소선)의 말 중에서

입은 영 허영 조개추룩 벌리곡
몸은 공추룩 돌돌 말앙은에
어디 돌코망에 잇당 나와신고?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춘희 삼춘(고두심)의 말 중에서

그 봄, 엄청 잔인혯주.
산속에 숨엉 잇어신디 나가 울엇젠.
젖먹이 어린애가 당연헌 거 아니라?

영화 〈빛나는 순간〉, 진옥(고두심)의 말 중에서

느 다음 생에 나 각시허라.
훈평생 나가 잘 보살피멍 살아주마.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 어머니(김용림)의 말 중에서

집이 강 도세기 밥 줘 둰 오젠게.
하루종일 굶엄실 건디
밥만 줘 둰 오커라게.

영화 〈지슬〉, 원식이 삼춘(문석범)의 말 중에서

어멍은 그냥 너 하나 걱정이라.
너 하나 잘 살아시믄 허는 바램밖에 엇고.
너 하나 잘뒈믄 이 세상 아무 미련 엇저.

영화 〈어멍〉, 어멍(문희경)의 말 중에서

바당 벳살이 과랑과랑허여 노난
이 양지 문 칸.

드라마 〈가옥신〉, 노일저대(백선아)의 말 중에서

촌마가라, 너무 헴저이. 내가 이번에이,
정신 똑바리 차리게 멘들앙
보내야 뒈크라.

영화 〈뽕뚤〉, 뽕뚤(이경준)의 말 중에서

너네 지실이엔 들어봤나? 지실.
아멩 무시거엔 골아봣자이
제주도 말이 젤로 곱들락허메.
이추룩 아꼽곡 제라진 말이 어디 시크니?

영화 〈봉오동 전투〉, 재수(홍상표)의 말 중에서

세상살이가 힘들고 지쳐도
온전헌 나 편 하나만 시믄 살아지는 게 인생이라.
나가 느 편 헤 줄 테니 너는 느 원대로 살라.
할망이 모든 거 다 헤 줄 거여.

영화 〈계춘 할망〉, 계춘 할망(윤여정)의 말 중에서

엿날 먹을 거 엇일 땐
뺏데기 솖앙 먹는 게 저슬 벨미랏주게.

드라마 〈멩질 먹게 혼저 오라〉, 할머니(오영순)의 말 중에서

애 키우는 게 쉬운 줄 알멘?
내가 너 키웡 먹은 두통약이 한 트럭이고
너 몰래 훔친 눈물이 저 바당이라.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방호식(최영준)의 말 중에서

입허고 코에 낀 멩줄
떼자고 허민 떼라이.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춘희 삼촌(고두심)의 말 중에서

그런 멍청헌 생각으로
똑똑헌 머리 판내지 말라.
멩심허라. 너는 이 나라 사름 아니여.

드라마 〈파친코〉, 한수 아방(정웅인)의 말 중에서

저녁 하늘에 별 두 개 싯지?
똑 부터 이신 거 닮아도
막 멀리 떨어져 잇덴.

드라마 〈파친코〉, 한수 아방(정웅인)의 말 중에서

는 과외 선셍이주, 부름씨 허는 사름 아니여.
다음 가건 분명허게 골으라이.

드라마 〈파친코〉, 한수 아방(정웅인)의 말 중에서

배 뽕끄랑ᄒᆞ게 먹어 보게.

드라마 〈파친코〉, 한수 아방(정웅인)의 말 중에서

아이고, 지슬 솖은 거로구나.
복삭복삭 모인 게 촘 먹음직ᄒᆞ다.

드라마 〈멩질 먹게 혼저 오라〉, 가호 아방(강상훈)의 말 중에서

아이고, 나 강셍이덜.
무사 눈 안 터졈시냐?

드라마 〈멩질 먹게 혼저 오라〉, 할머니(오영순)의 말 중에서

이디 완전 ᄋᆞ시록ᄒᆞ곡 좋지 아녀꽈?

드라마 〈가옥신〉, 노일저대(백선아)의 말 중에서

한 판 헹 이기민 이녁신디 이신 돈
매기독닥 잃을 건디?

드라마 〈가옥신〉, 노일저대(백선아)의 말 중에서

막 주들멍 잇어나난 모냥인가?
몸이 놀싹허다.

드라마 〈가옥신〉, 셋째아들(고훈민)의 말 중에서

무사 삼춘은 경 커싱커싱 홈이꽈?

드라마 〈어멍의 바당〉, 정식 엄마(진정아)의 말 중에서

죽을 동 살 동 ᄒᆞ멍이라도 배와사주게.

드라마 〈어멍의 바당〉, 할머니(이영원)의 말 중에서

단이사 잘도 아꼬와낫주.
ᄋᆞ망지곡.

드라마 〈어멍의 바당〉, 정식 아빠(문종선)의 말 중에서

숙이야, 듣지 말라게. 아이구, 경ᄒᆞ당
푸더진다게. 자이도 원.

드라마 〈어멍의 바당〉, 어머니(정민자)의 말 중에서

우리 단이, 자이 어떵ᄒᆞᆯ 땐 부룩ᄒᆞ는디
잘 봐 줍서양.

드라마 〈어멍의 바당〉, 아버지(고정민)의 말 중에서

아이고, 날 우치젠 이거가?
머리도 띵ᄒᆞ곡
속이 영 안 좋다.

드라마 〈어멍의 바당〉, 어머니(정민자)의 말 중에서

그동안 고마왓수다.
말은 안 헹 두글락 두글락 ᄒᆞ여도
이녁 ᄆᆞ음 다 알주마씨게.

드라마 〈어멍의 바당〉, 어머니(정민자)의 말 중에서

가이 막 컷고렌 존다니가 어떵사 심헌디.

영화 〈인어전설〉, 춘자 엄마(허정옥)의 말 중에서

나 손지로 와 줭 춤말로 고맙다이.

영화 〈계춘할망〉, 계춘할망(윤여정)의 말 중에서

아, 놔. 이 멜만헌 게 덤비네.

영화 〈뽕뚤〉, 뽕뚤(이경준)의 말 중에서

아이고, 서늉데가리허곤.

영화 〈빛나는 순간〉, 진옥(고두심)의 말 중에서

저 멍텅구린 또 누게라?

영화 〈빛나는 순간〉, 진옥(고두심)의 말 중에서

무사마씨?
나 바쁜디 골을 말 이시민 확 골읍서.

영화 〈빛나는 순간〉, 설희(전혜진)의 말 중에서

저 지픈 바당 속에 이신 곱닥헌 나 뚤.

영화 〈빛나는 순간〉, 진옥(고두심)의 말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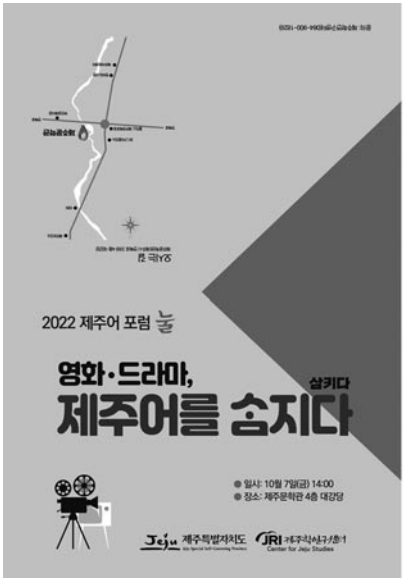
정헤도 우리 아방추룩
우리 어멍 아껴준 사람 어디수과?

영화 〈어멍〉, 아들(연준)의 말 중에서

3.2.

홍보 및 보도 자료

■ 2022 제주어 포럼 '눌' 초대장



초대합니다

"사람은 three 가지만 챙겨도 혁띤 챌다. 똑 우나."

올 3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은 AppleTV+ 드라마 〈파친코〉에서 한수 아방(정용인)이 한 말입니다. 이 대사처럼 한 가지라도 특부러지게 할 수 있다면, 살아가는 데에 큰 버팀목은 얻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제주어이면 더욱 좋을 듯합니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영화나 드라마 속의 제주어가 따옥 사랑받는 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학연구센터가 세 번째 제주어 포럼의 주제를 '영화와 드라마 속의 제주어를 소환하여 그 사랑을 널리 공유하고 싶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센터는 2020년 제주어 포럼 '눌'을 창설해 올해로 3회를 맞습니다. "영화 · 드라마, 제주어를 삶지다"라는 주제로 어는 이런 포럼에서 메체를 통한 제주어의 가치와 우수성을 조명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화와 드라마가 '고정(삶김)' 제주어를 되새기면서 '제주어를 올바로 하겠다는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2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드림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내 용	참 여
개회식 사회: 김미진 (제주학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14:00-14:10	인사말	김순자(제주학연구센터장)
		격려사	제주연구원장
		축사	김한규(국회의원)
			오성들(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이승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14:10-14:20	제주어 노래 공연	루아(가수)
1부	14:20-16:00	영화 상영회	'낯-라는 순간' 상영
	16:00-16:10		휴식
2부 좌장: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	16:10-17:20	'영화 · 드라마, 제주어를 삶지다' 좌담회	양영식(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 변정근(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장) 고희범(필름시 영화감독) 김선희(KBS 구좌읍 지기) 현충수(문화놀이터 도깨비 대표)

■ 2022 기념품-2023 제주어 공책 '눌'







■ 언론 보도 자료

매체명	날짜	보도 자료 제목
제주의소리	2022. 9. 28.	작가, 영화감독, 배우로부터 듣는 대중문화 속 제주어
서울문화투데이	2022. 10. 4.	제주학연구센터, 2022 제주어 포럼 '눌' 영화·드라마, 제주어를 ᄉᆞᆷ지다(삼키다) 개최
제주레저신문	2022. 10. 4.	'파친코' 정웅인 제주말은 누가 가르쳤을까?
제주의소리	2022. 10. 8.	"영화·드라마 등 미디어 등장 많아진 지금, 제주어 숨 불어넣을 골든타임"
제주매일	2022. 10. 10.	"소멸위기 4단계 제주어에 숨을 불어넣을 골든타임"

2022년 9월 28일(수), 제주의소리

작가, 영화감독, 배우로부터 듣는 대중문화 속 제주어

-제주학연구센터, 10월 4일~7일 '제주학대회' 개최...고문서, 아카이브 조명

제주학연구센터(센터장 김순자)는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여섯 번째 제주학대회 '제주학으로 노닐다'를 개최한다.

올해 제주학대회는 ▲대중문화 속 제주어 ▲아카이브 ▲고문서 등을 주제로 진행한다.

지역학 아카이브의 필요성

4일 화요일 오후 3시, 센터 2층 자료실에서는 '제2회 제주학 네트워크 포럼—제주학 아카이브의 현재와 미래'가 열린다.

제주 아카이브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제주 관련 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한다. 함한희 무형문화연구원장이 '지역학 아카이브의 가치와 미래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제주학 아카이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

숨겨진 고문서의 가치 발굴

5일 수요일 오후 1시, 아젠토피오레컨벤션(제주시 서광로 112)에서는 '제6회 제주학대회 학술대회— 제주 고문서—과거의 유산, 미래의 문화자산으로'가 열린다.

제주에 산재한 고문서들을 효과적으로 수집·보존·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기조 강연은 이해준 공주대 명예교수가 '고문서 연구 현황과 지역학'을 발표한다.

여기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호남진흥원, 문화재청,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대학교, 제주학연구센터 등 국내 고문서 연구기관 연구자들이 모여 다양한 논의를 펼친다. 이 행사는 제주학연구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한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제주학연구센터가 꾸준히 이어온 마을 고문서 발굴 사업을 소개하면서 흥미로운 결과들을 발표할 예정이라 관심을 모은다.

영화, 드라마 속 제주어

7일 금요일 오후 2시, 제주문학관 4층 대강당에서는 '제주어 포럼 눌—영화·드라마, 제주어를 숨지다'가 열린다.

영화와 드라마 속에서 제주어는 어떻게 다뤄지는지 영화감독 고희영, 배우 변종수, KBS제주 작가 김선희 등과 함께 이야기 해본다. 포럼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 한다.

이 밖에 제주학연구센터의 발간 자료를 도민과 나누는 '책 나눔' 행사도 함께 열린다. 6일 목요일에는 '제주학 역사 탐방—대정 역사 속을 거닐다'도 준비돼 있다.

김순자 센터장은 "이번 제6회 제주학대회·제주학 주간은 도민들과 함께 제주학을 노닐 수 있는 행사들을 마련했다"면서 "제주학연구센

터가 앞으로도 도민들과 소통하며 제주학의 보화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학연구센터 누리집(www.jst.re.kr)과 전화(064-900-1825)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학연구센터는 2020년부터 10월 첫 주간을 '제주학 주간'으로 설정하고, 제주학과 관련된 여러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다.

출처: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한형진 기자(cooldead@naver.com)

2022년 10월 4일(화), 서울문화투데이

제주학연구센터, 2022 제주어 포럼 '눌' 영화·드라마, 제주어를 숩지다(삼키다) 개최

-영화 '빛나는 순간' 상영, 제주어 관련 좌담회 진행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센터장 김순자)에서는 〈제주어 포럼 '눌'－영화·드라마, 제주어를 숩지다(삼키다)〉를 오는 7일(금) 오후 2시부터 제주문학관 4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제주어 포럼 '눌'은 '영화·드라마, 제주어를 숩지다(삼키다)'라는 제목으로 영상매체와 제주어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된다. 최근 영화나 드라마 속에 제주어가 많이 등장하여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제주어 관련 기관·단체·활동가·도민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개회식과 가수 '루아'의 제주어 노래 공연을 시작으로 제주어 포럼 '눌' 1부는 고두심 배우가 출연한 영화 〈빛나는 순간〉을 관객들과 함께 보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2부는 좌담회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청 변영근 문화정책과장, 영화 〈물숨〉의 고희영 감독, KBS 제주어 드라마 〈가옥신〉의 김선희 작가, AppleTV+ 드라마 〈파친코〉 정웅인 배우의 제주어 연기 지도를 한 변종수 배우 등이 참여하여 영화, 드라마가 삼

킨 제주어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나눈다.

제주학연구센터 관계자는 "이 행사를 통해 제주어의 가능성과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으면 한다"면서 "제주어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사장 입구에는 제주어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영화, 드라마 속의 제주어 대사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어 포럼 '눌'은 2020년부터 해마다 제주어 관련 단체, 연구자, 활동가들의 제주어에 대한 공유와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는 행사로, 제주학연구센터가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 행사에는 제주어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행사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학연구센터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출처: 서울문화투데이(http://www.sctoday.co.kr), 오형석 객원기자

2022년 10월 4일(화), 제주레저신문

'파친코' 정웅인 제주말은 누가 가르쳤을까?

제주도 제주학연구센터(센터장 김순자)에서는 '제주어 포럼 '눌'–영화·드라마, 제주어를 숨지다'를 이달 7일 오후 2시부터 제주문학관 4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제주어 포럼 '눌'은 '영화·드라마, 제주어를 숨지다'라는 제목으로 영상매체와 제주어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한다.

가수 '루아'의 제주어 노래 공연을 시작으로 제주어 포럼 '눌' 1부는 고두심 배우가 출연한 영화 〈빛나는 순간〉을 관객들과 함께 보는 시간이다. 2부는 좌담회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위원, 제주도청 변영근 문화정책과장, 영화 〈물숨〉의 고희영 감독, KBS 제주어 드라마 〈가옥신〉의 김선희 작가, AppleTV+ 드라마 〈파친코〉 정웅인 배우의 제주어 연기 지도를 한 변종수 배우 등이 참여하여 영화, 드라마가 삼킨 제주어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나눈다.

제주학연구센터 관계자는 "제주어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주어 포럼 '눌'은 2020년부터 해마다 제주어 관련 단체, 연구자, 활동가들의 제주어에 대한 공유와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는 행사다. 제주어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행사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학연구센터 홈페이지(http://www.jst.re.kr)에서 볼 수 있다.

문의 064-900-1829

제주레저신문(http://m.leisuretimes.co.kr), leisuretimes@leisuretimes.co.kr

2022년 10월 8일(토), 제주의소리

“영화·드라마 등 미디어 등장 많아진 지금, 제주어 숨 불어넣을 골든타임”

-2022 제주어 포럼 개최...고희영·김선희·변종수 등

제주어 보전 다짐 한 마음

국내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영화 ‘빛나는 순간’, 미국 드라마 ‘파친코’ 등 최근 제주어를 사용한 영상 작품들이 잇달아 등장하면서, 제주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많은 사람들이 제주어에 호기심을 가지고 매체 노출 또한 늘어나는 최근 상황을 제주어를 알릴 ‘골든타임(결정적 순간)’으로 삼자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학연구센터는 7일 오후 제주문학관 4층 대강당에서 ‘제주어 포럼 눌—영화·드라마, 제주어를 숨지다(삼키다)’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제6회를 맞는 제주학대회의 일환이다. 최근 대중문화에서 더욱 주목하는 제주어에 대해 업계 종사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포럼 패널은 영화 ‘물숨’과 ‘물꽃의 전설’, 그림책 ‘엄마는 해녀입니다’ 등을 제작한 영화감독 고희영, 방송작가로 30년 넘게 활동하며 제주어 TV드라마 ‘가옥신’, ‘어멍의 바당’ 등을 쓴 김선희, 평생을 연극인으로 살아왔고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 ‘인생이 아름다워’, 영화 ‘계

춘할망', 미국 드라마 '파친코' 등의 작품에서 제주어 감수를 맡은 연극인 변종수 배우 등을 초대했다. 여기에 양영식 제주도의원과 변영근 제주도 문화정책과장도 함께했다. 진행은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이 담당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제주어로 창작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고민, 생각들을 풀어냈다.

김선희 작가는 "2011년에 제주어 드라마를 처음 제작했다. 고대 탐라국부터 근현대사까지 제주사를 풀어내는 프로그램으로 3년 2개월 동안 진행했는데, 당시만 해도 TV방송에서 사투리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보수적인 시기였다. 그래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어로도 제작했는데 제주어일 때와 반응이 달랐다. 제주어로 제작하면 시청자들이 '우리 이야기'라면서 더욱 흥미있게 반응해줬다"고 설명했다.

고희영 감독은 "영화 제작을 할 때 제주 삼춘들과 인터뷰를 하면 고민이 생긴다. 중간 정도는 표준어를 써야 할까 싶은데, 제주어로 말하자마자 삼춘들이 너무 편하게 대해주신다. 제주어를 쓰기 전까지는 묘하게 긴장하는 모습이 느껴진다. 언어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던데, 확실히 공감한다. 영상 작업을 하면서 제주어의 위력을 날마다 느낀다"고 말했다.

변종수 배우는 "돌이켜보면 2010년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에 출연했던 김용림 선생이 제주 출신도 아님에도 제주어를 정말 잘하셨다. 제주어를 예전처럼 완벽하게 구사하진 않았지만, 감정을 중요시 여기면서 제주어와 표준어를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했다. 그 당시에는 제주어를 잘한다고 여기지 않았지만 다시 살펴보니, 최근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주어와 유사해서 깜짝 놀랐다. 2010년 김용림 선생이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제주어 연기였다"고 밝혔다.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모두 제주인으로서 제주어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 세 사람은 제주어가 소멸위기 언어에서 벗어나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바람을 남겼다.

연극인 변종수는 "영향력 있는 배우, 인사들이 먼저 나서서 제주어를 많이 써주길 바란다. 경상도 사투리가 방송에서 등장한 때가 오래된 것 같지만 길어도 30년 밖에 안 된다. 예를 들어 원로배우 추송웅 선생은 경력이 쌓이면서 원래 대본을 경상도 사투리로 바꿔서 연기했다"면서 "미디어에서 제주어를 사용할 때 최대한 옛 상태와 비슷하게 사용해야 바람직한 것일까. 난 그렇진 않다고 본다. 오히려 작은 표현 정도라도 표준어처럼 거부감 없이 사용하고 대중들에게 각인이 된다면 제주어 보전에 나름 기여하는 게 아닐까. 생경한 언어를 온전히 따라하기란 무척 힘든 일이다. 작은 것에서 출발하면 좋겠다. 지금은 미디어의 파급력이 더욱 커지지 않았냐"고 강조했다.

고희영 감독은 “어떤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언어다. 최근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가 큰 인기를 얻었는데, 드라마 속 출연자들이 제주어를 잘하나 못하나를 분석한 유튜브 영상도 조회수가 110만회를 기록할 만큼 지금 제주어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제주어는 표준어와 비교해도 더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외에서 영화 상영 행사를 가면 어느 국가 도시를 가도 제주분들은 꼭 만나게 된다. 그분들은 제주어가 영화에서 들리는 순간 눈물을 흘리신다. 언어는 참 대단하다. 제주어 안에는 제주 바람 소리가 있고 제주인의 정서가 있다. 마치 퇴적층처럼 언어 안에 쌓여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희 작가는 “언어는 아래로 흘러야 보전된다. 지금 제 나이가 50대인데, 우리 세대는 7080 이상 윗세대의 말을 모으고 동시에 아래 세대로 전달해야 하는 역할인 것 같다. 학교 방과 후 과정이나 동아리에 그치지 않고 더 강화된 교과과정 안에서 제주어를 가르쳐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제주어가 손자·손녀까지 전달되리라 본다. 효과적인 제주어 전승을 위해서 ‘제주어 소리 사전’이 꼭 만들어지면 좋겠다. 드라마 원고를 써도 제주어는 눈으로는 절대 알 수 없고 소리로 익혀야 한다”면서 “제주어는 유네스코가 공인한 소멸위기 언어인데, 대중적으로 관심 많아진 지금이 제주어에 숨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아닌가 싶다. 어떤 형식으로든 제주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제주어가 조금 더 긴 생명력을 가지도록 노력해야겠다”고 강조

했다.

양영식 의원은 “이렇게 문화·예술 영역에서 제주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 제주어가 그나마 지탱이 된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제주어를 보전하고 지키는 노력을 계속 고민하고 찾겠다”고 밝혔으며 변영근 과장도 “행정의 역할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제도 안에서 실현하는 역할이라고 본다. 제주어를 지키고 홍보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출처: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한형진(cooldead@naver.com)

2022년 10월 10일(월), 제주매일

“소멸위기 4단계 제주어에 숨을 불어넣을 골든타임”

-제주학연구센터, 7일 열린 제주어 포럼서 제주어 보존 시급성 공감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와 애플티비 드라마 ‘파친코’ 등을 통해 제주어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각종 드라마와 영화 등을 통해 노출이 급증한 제주어는 과거 촌스럽고 투박하다는 평가 대신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소멸위기 제주어에 숨을 불어 넣어야 할 ‘골든타임’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 7일 제주문학관에서 제주학연구센터(센터장 김순자)가 주관한 제주어 포럼 눌 ‘영화·드라마, 제주어를 숨지다(삼키다)’ 참석자들은 고두심·지현우 주연의 영화 ‘빛나는 순간’을 함께 감상하고 최근 영화나 드라마에 제주어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의견을 나눴다.

해녀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물숨’의 고희영 감독은 “제주도만큼 인간세계를 뛰어넘는 여분의 세계가 공존하는 곳이 없다”면서 “신화가 있고 늘 자연신을 숭배하는 자연철학이 있고, 풍경만 보던 사람들이 그 너머를 보고 싶어하고 그 너머의 언어를 보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어멍의 바당’, ‘가옥신’ 등 제주어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는 KBS제

주방송총국 김선희 작가는 “제주어 드라마나 영화가 늘고 있는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대본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응원하면서 작업하고 싶다”면서도 “제주어에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생각해 볼 때 소멸위기 4단계 제주어에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제주어가 강하고 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종수 씨는 “영화 ‘빛나는 순간’ 끝에 제주어로 ‘사랑합니다’를 뭐라고 해야 하느냐고 묻는데 제주어에서 ‘사랑합니다’는 없고 ‘느 보구정하다’고 하거나, 주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도 ‘안녕하십니까?’가 아니라 ‘펜안허우꽈’ 등을 사용하는데 드라마와 영화에서 직역을 해버리면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야기 소재로 재밋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배우 캐릭터, 의상 등으로 재밋거리를 찾는 데 한계가 있고 재밌고 생경한 것이 필요한데 제주어가 새로워 그런 것 같다”며 최근 제주어 열풍을 이유를 들었다.

김순자 센터장은 “예전에는 제주어 강의 같은 데를 가면 제주어가 투박하고 촌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너무 귀엽다, 아름답다고 이야기한다”면서 “제주어는 언어로서의 소통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주문화를 담아내는 수단이자 제주사람들의 삶이고 영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태왁이 해녀들의 생명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제주어는 제주 사람들의 목숨이고 끊어지면 죽는다”면서 제주어 보존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김순자 센터장을 좌장으로 양영식 제주도의회 의원, 변영근 제주도 문화정책과장, 고희영 영화감독, 김선희 KBS 제주방송총국 작가, 문화놀이터 도채비 대표이자 배우 변종수 씨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출처: 제주매일(http://www.jejumaeil.net), 한애리 기자(arhan@jejumail.co.kr)

3.3.

행사 사진

■ 행사 사진 자료



제주어 대사 전시



행사 관계자



등록 및 자료 배포



제주어 포럼 '눌' 객석



개회식 사회(김미진)



개회식 인사말(김순자)



제주어 노래 공연(가수 루아)



제2부 영화·드라마 속 제주어 관련 좌담회



제2부 영화·드라마 속 제주어 관련 좌담회



제주어 포럼 '놀' 단체 사진

‘제주어 포럼 ‘눌’-영화·드라마, 제주어를 숩지다삼키다’ 행사 기록

발행일 2022년 12월 20일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278, 3층
전화 064-900-1829 모사전송 064-900-1890
누리집 http://www.jst.re.kr
제작 한그루
onetreebook.com

발간등록번호 11-B553921-000022-01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혀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비매품

2022 제주어 포럼 눌 행사기록

영화·드라마
제주어를 삼지다 삼키다